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전상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CONTENTS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Ⅰ 서론: 왜 도시인가?

Ⅱ 북한체제와 공간이론

1. 북한의 건축론 14
2. 북한의 도시(계획)이론 19
3. 북한과 수도이론 28

Ⅲ 북한의 '수도' 평양

1. 도시연혁 34
2. 공간구조와 경관, 건축 40
3. 도시공간과 시민생활 61

Ⅳ 북한의 지방도시들

1. 함흥 70
2. 개성 79
3. 평성 87

Ⅴ 결론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서론:
왜 도시인가?

I

서론: 왜 도시인가?

I

이 책의 목적은 북한을 도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북한연구에는 다양한 목적과 접근법이 존재한다.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차원도 있고, 변화를 모색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실천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다. 전자는 말하자면 '과학으로서의 북한연구'이고, 후자는 '정책으로서의 북한연구'다. 이 가운데 이 책은 일차적으로 전자에 해당한다. 북한을 보다 많이, 그리고 보다 잘, 그리고 보다 새롭게 알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결과다.

이럴 때 도시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구로 활용된다. 한편으로 이는 북한연구에서 도시가 연구주제로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이 강력한 국가중심적 체제하에서는 도시 자체의 존재감이나 능동성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 도시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하긴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연구는 오랫동안 학계의 방계 내지 비주류였다. 분권화나 자치도시의 전통이 부재했던 정부주도형 내지 중앙집중형 사회의 특성이 학문연구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 책이 북한의 도시에 관심을 갖는 또다른 이유는 도시가 북한체제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다. 북한의 도시체계나 북한 도시들의 공간구조를 통해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화의 가속화나 도시문제의 발생 등은 북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도시는 사회변동의 공간적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브로델이 도시를 '변압기'라 부른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1]

도시는 인류의 역사적 발명품이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오늘날과 같은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도시라는 말 뒤에 통상적으로 계획, 설계, 건설, 개조, 재생, 재정비 등이 결합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물론 도시를 만들어가는 인위적 개입의 방식과 정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시장의 자율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자본주의

[1] 브로델(1995:695)은 유럽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을 자치도시의 발전에서 찾았다. 도시는 사회적 긴장을 증대시키고 교환을 가속화시켜주며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섞기 때문에 변압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도시계획이 사회주의 체제의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도시형태(urban form)의 차이로부터 체제의 특성을 읽어내는 정치적 도상학(political iconography)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도시형태(urban form)는 나름 정치적 의미를 드러내게 된다. 도시 형태는 특정한 정치적 가치의 결과적 징표(symptom)일수도 있고 의도적 상징(symbol)일수도 있는 것이다(Sonne, 2003:29).[2]

특히 북한은 강력한 계획·이념(plan-ideological) 국가체제다. 계획이 국가운영의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목표라는 의미에서다. 북한은 자본주의적 발전국가의 '경제계획'은 물론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경제'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북한은 '주체'의 이념을 지향하는 철두철미 '명령경제'이자 '통제경제' 시스템을 지속해 왔다. 시장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시민사회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대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그런 만큼 북한의 도시는 태생적으로 국가에 의한 공학적 계획의 산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은 북한의 도시에 대한 연구 못지않게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가 된다.

도시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많은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무대이기도 하다. 비록 도시가 도시계획의 산물이라고 해도 인간과 공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 역시 결코 예외가 아니다. 르페브르의 공간변증법에 의하면 사람들의 실제적 공간생활은 도시계획적 의도나 목표에 반드시 그리고 항상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3] 알게 모르게 위로부터 부과된 공간규범과 장소규칙에 반항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다. 사적 영역의 태동과 시장의 발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이 북한의 물리적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이면서 북한의 도시공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책은 북한의 모든 도시들을 다룰 수 없다. 이 책은 북한의 일부 도시들을 선택하였는데, 해당 도시에 대한 유관 자료나 기존 연구의 존재 여부가 한 가지 기준이었다. 또 다른 기준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북한 도시들의 전체상을 그려볼 수 있는 대표성 여부였다. 그 결과, 이 책은 우선

[2] 짐멜에 의하면 대칭형 도시 형태는 대체로 모든 독재체제에,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는 비대칭형 도시형태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Sonne, 2003:30).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형태와 정치체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방어 목적에 관련하여 성채(acropolis)는 과두정치나 군주정치에 적합하고, 평지(plain)는 민주주의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귀족정치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은 일련의 강견(剛堅)한 장소(a number of strong places)를 선호한다"고 주장했다(Aristotle, 1981:422).

[3] 르페브르(2011)는 권력집단이나 지배계급에 의한 위로부터의 공간 만들기를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으로, 이에 대한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적 수용을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으로,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자들의 비판적 거부와 대안공간의 모색을 '재현의 공간'(representational space)라고 불렀다.

평양에 큰 비중을 할애하게 되었다. 분단체제 하에서 평양은 북한이 '수도'의 지위를 임의로 부여한 도시이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북한의 압도적인 최대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함흥은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오래된 중공업도시라는 이유로, 개성은 역사도시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무대라는 이유로, 평성은 평양 주변의 신흥 위성도시라는 이유로 각각 선택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도시공간 형성원리에 관련하여 건축과 도시, 그리고 수도에 대한 북한 나름의 논리와 배경을 소개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제3장과 제4장은 북한 도시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한다. 제3장은 '수도' 평양에 대한 것이고 제4장은 함흥, 개성, 그리고 평성에 대한 것이다. 분석내용은 크게 각 도시의 연혁, 공간구조와 경관 및 건축,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로 나누어진다. 평양의 경우에는 내용분석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지방도시들의 경우 자료의 한계에 따라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설명만 가능했다. 제5장은 북한도시들의 특성과 미래전망과 연관된 결론 부분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북한체제와 공간이론

1. 북한의 건축론

2. 북한의 도시(계획)이론

3. 북한과 수도이론

II

북한체제와 공간이론

II

1. 북한의 건축론

건축(architecture)이라는 말은 원래 '으뜸, 으뜸이 되다, 우두머리' 등의 뜻을 가지는 'archi'라는 접두어와 '기술'을 뜻하는 'tecture'의 합성어로서 '모든 기술의 으뜸' 또는 '큰 기술'이라는 뜻이다. 한자문화권에서는 '꾀하여 짓는다'는 '영조(營造)'라는 말이 적합하나, 근대기 이후에는 '세울 건(建)'자와 '쌓을 축(築)'자를 합한 '건축(建築)'이라는 말을 'architecture'의 의미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건축은 인간의 필요와 건축 재료에 의해 실용적·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며, 이로써 단순한 건조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곧 '건물(建物)'과 구분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북한에서 건축이 갖는 의미는 이와 같은 일반론을 훨씬 능가한다. 북한에서 건축이란 사상과 체계를 직접 담아내는 구체적인 응축물로서, 건축 혹은 건축물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능성과 안전성 등 뿐 아니라 사상 교양적 역할까지 겸비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건축은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및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여주는 수단"(백과사전출판사, 1995:548; 김정일, 1992:3)으로 정의된다. 건축에는 실용성에 더해 반드시 사상예술성이 담겨야 한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김정일, 1992:11).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건축물을 '건설물건물'과 '건축구조물'로 구분한다. '건설물건물'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거건물, 공공건물, 생산건물 등을 의미하고, '건축구조물'로는 기념구조물(기념탑, 기념비), 장식구조물(분수, 무리등주), 표식구조물(도로표식물 등), 휴식·봉사용구조물(의자, 덩굴덕대 등), 선전구조물(선전판, 안내도판 등) 등을 뜻한다. '건축구조물'은 "조형적 처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하며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건설물건물'에 비해 위상이 보다 높다(백과사전출판사, 1995:552).

북한에서 건축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거나 특정 계급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김정일, 1992:6).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발전하는 것이 사회주의 건축의 특징이며, 건축 발전의 원동

력이자 건축 창조의 주요한 지침 또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50년대 전후 복구사업부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기반한 러시아의 신고전주의 양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건물 중심부인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의 강한 축을 형성하고 육중한 구조미와 대칭성을 보여주는 형식이다. 또한 층고(層高)를 높이고 열주형 기둥을 노출시킴으로서 수직성을 강조하는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인민대중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윤하, 2010a).

1960년대부터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영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고자 했는데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이른바 '주체건축'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주체건축은 민족적 형식을 사회주의적 내용을 채우려는 시도다. 이 때 사회주의적 내용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편리함, 아담함, 아름다움, 견고함을 보장하는 것이고, 민족적 형식은 민족 고유의 심리와 감정, 구미에 맞는 민족주의적 미학의 현대적 계승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북한은 주체건축을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건축" 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축의 본보기" 라고 주장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1995:550).

주체건축론에 따르면 "건축은 자기 나라의 지역 및 기후 특성과 자기 민족의 생활감정과 구미에 맞게 창조되며 발전" 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건축이론을 경계하면서 특히 자신들이 한 때 받아들였던 소련식 건축이론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한때 사대주의, 교조주의자들은 현대적으로 웅장하게 일으켜 세워야 할 평양의 중요거리에 외국의 촌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으며 외국의 건축양식, 심지어 생활양식까지 통째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리화선, 1993a:337). 주체건축론의 부상과 더불어 건축전문직의 동구권 유학은 전면 중단되었고 유일사상체계 등장을 전후하여 이미 유학을 다녀온 대다수의 건축관련 기술관료들도 대거 숙청되었다(장세훈, 2004:285).

사회주의 건축을 거쳐 주체건축으로 귀결된 북한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시각적 균형의 강조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5:556).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통일성이나 조화성을 보장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하여 건축에 있어서 대칭이나 대조의 수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마도 시각적 균형이 사회적 평등을 시사하는 측면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둘째, 북한 건축은 건축물이 지녀야할 가시성과 상징성을 강조한다. 북한의 건축은 균형을 통해 단정하고 정결한 감을 주어야 할 뿐 아니라 기념비적인 느낌까지 창출해야 한다. 이 때

북한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건축적력점'과 '건축형성축'이다(김정일, 1992:142). '건축적력점'은 사람들의 이목을 특히 집중시켜야 하는 곳을 부각하는 건축설계 요소인데, 건축물의 벽 등이나 장식, 거리의 고층 탑식건물, 직선 건물들 속의 곡선형태 건축물, 현대적 건축물 속의 조선식 지붕 등이 그 보기이다. 건축 설계에 있어서 가상으로 선정되는 '건축형성축'은 중심적 건축설계 요소와 보조적 건축설계 요소들 사이에 명확한 주종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통일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수법이다.

북한 건축이 중시하는 세 번째 특징은 '건설속도'이다. 북한에서는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가 최단 기간에 최상의 양적, 질적 건설성과를 내야만 한다. 1956년 김일성이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재 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를 강조한 이래 건설속도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이왕기, 2000:37). '평양속도'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4] 건설속도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있던 1980년대에 다시 한 번 두드러졌고,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 역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비교적 제한적이다. 북한에서 건축가에게 요구하 임무는 당이 추구하는 건축 구상을 실현해내는 능력 정도다. 북한의 건축가는 건축계획과 설계를 직접 담당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내세우지는 못한다. 건축가는 건축물에 자신의 창의적 디자인을 담아내는 것보다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가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당 정책을 깊이 체득하는 것"이다(김정일, 1992:151). 건축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주의 사상, 주체이념으로 무장해야 하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다.

2. 북한의 도시(계획)론

도시라는 말에는 도읍(都邑), 곧 정치 또는 행정의 중심지라는 뜻과 시장, 곧 경제의 중심지라는 의미가 섞여있다. 도시가 중심지라는 의미는 도시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크기와 밀도가 도시의 유일한 혹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농업 대비 산업 부문의 비중이나 시가지(市街

[4] 1958년 한 해 동안 조립식 건설과 규격 강재를 통해 평양에는 2만 800여 세대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3분에 벽체 1개를 조립해 14~16분 만에 한 세대를 지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평양속도'라 부른다(사회과학출판사, 1986:108). 그 밖에도 북한에는 도시나 지명을 딴 속도 이름이 많다.

地) 형성의 정도 역시 도시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다. 도시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북한도 별로 다르지 않다. 전망 인구를 기준으로 북한에서도 도시를 특대도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로 구분하긴 하지만, 농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도시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도시주민들은 토지를 생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 행정, 과학, 문화, 교육 등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56-257). 북한에서는 도시를 기능에 따라 생산도시, 소비도시, 상업 및 교통도시로 나누고 있다.

〈표 1〉 북한의 도시 유형 및 기준

기준	유형	
기능	생산도시	공업도시, 채굴광업도시, 수산도시, 임업도시
	소비도시	행정문화도시, 과학도시, 군사도시, 종교도시, 관광도시, 요양도시 및 휴양도시, 살림집(주거)도시
	상업 및 교통도시	무역도시, 교통도시
규모	특대도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인구 20만–100만
	중도시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 5만명 이하

앞에서 언급하였듯,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도 도시는 계획의 대상이다. 도시에 대한 계획과 관리는 자본축적을 위한 공간이용이 효율화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협하는 도시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의 본질은 공간에 관련된 사적 재산권을 공공의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도시계획의 범위가 훨씬 넓고 강도 또한 훨씬 세다.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사적 소유권 개념이 원천적으로 부재한데다가 사회를 지배하는 힘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권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도시를 기본적으로 "국가의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의 발전 정도를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담아내는 발현체"로 인식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58). 따라서 도시계획은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산업화된 대도시 대신 농촌의 생산요소를 갖춘 소도시를 선호한다. 또한 하위계층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도시재개발에 반대하며, 도시와 농촌지역의 분리가 아닌 융화를 추구한다(김원, 1998:19-43). 이로써 사회주의 도시의 전형은 '생산의 도시'(city of production), '녹색의 도시'(city of green), 그리고 '상징의 도시'(city of symbolism)다. 생산의 도시란 도시는 소비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생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녹색의 도시란 도시팽창을 억제하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를 감소시키고자 하

는 목적이다. 끝으로 상징의 도시란 도시가 이념과 체제의 과시 및 선전 무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임동우, 2011).

북한의 도시계획 이념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도시의 보편적 원칙을 반영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특유의 유일영도체제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도시계획은 "사상과 이념에 관한 문제"(김정일, 1995:61)이자 "정치경제적 과업"(백과사전출판사, 1998:258)으로서 철저하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설 구상과 건설방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다. 김일성은 "도시건설에서 국가의 정치경제적 면모가 나타납니다. 건설을 잘하면 국가의 면모가 좋아지고 건설을 잘못하면 국가의 면모가 초라해집니다"고 말했다(김일성, 1980b:359). 북한이 지향하는 도시는 "혁명적 사령관으로 일관된 도시"이자 "사상 예술적 요구가 일관되게 실현된 도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 259).

도시계획법상 북한의 도시계획은 주어진 토지이용을 전제로 하여 건물이나 시설물, 녹지 등을 건설, 개건, 정비하는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의 대상은 주택, 공공건물, 기념구조물, 거리길, 광장, 도시교통시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열공급시설, 공원, 유원지 등이다. 도시계획은 도시총계획, 세부계획, 구획설계, 순차 및 연차 건설계획의 단계로 구분된다. 도시총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발전 계획이고, 세부계획은 도시용도별 지역 또는 그 아래 구역들을 단위로 하여 도시총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도시계획이 반영할 요소로는 전망인구수, 도시계획영역과 건설영역, 보호영역의 규모와 경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주거지역, 공공건물지역, 산업지역, 철도, 항만, 비행장지역, 창고지역, 특수지역, 중요기관, 기업소구획의 규모와 경계, 도시중심부의 위치, 도로와 광장, 시내교통망, 기술시설망과 그에 따르는 시설물의 배치, 녹지의 배치, 지대조성, 그리고 재해 및 공해방지시설의 배치 등이 있다.

북한의 도시계획 이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거대 도시의 성장을 경계한다. 북한의 국토계획법 제11조는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도 '도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인구밀도, 건축밀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에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도시를 피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고, 소규모 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주체적인 우리식의 도시형성원칙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리민주, 2005:64; 공민달, 2012:414에서 재인용).[5]

[5] 소도시 지향의 도시정책은 최근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기준으로 평양, 함흥, 청진 등의 인구는 50만 명을 넘었고(통계청, 2008년 인구일제조사), 평양-남포는 이미 대도시권화 되었고, 개성, 신의주, 청진, 나진 등도 주요 지역거점으

둘째, 북한의 도시계획은 도시 중심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도시 중심부는 "도시 영역에서 기능상 및 형성상 중심이 되는 일정한 지대"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경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건설해야하는 공간으로 치부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6, 267). 김일성은 도시 중심부의 위치는 한번 설정되면 사회체제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속되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일성, 1980a:279). 도시 중심부가 도시계획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곳을 체제 선전 및 강화를 위한 사상과 이념의 교육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심의 가장 좋은 자리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이를 도시 전체의 기본 축으로 삼아 강, 바다, 구릉,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이 된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7, 559).

이처럼 북한의 도시 중심부는 체제의 사상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공간이자 혁명적 수령관을 배양하는 장소로서 박물관, 문화회관, 극장 등 공공 문화시설들이 밀집하는 곳이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심부가 행정, 상업, 업무, 서비스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김일성은 "도시 중심부의 큰 길가나 광장주변에 사무기관을 비롯한 공공청사들을 배치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현대적인 살림집과 함께 그들이 늘 이용하는 공공문화건물들과 봉사건물, 편의시설들을 도시봉사망 체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일성, 1980a:280). 김정일 또한 자본주의 도시건설 방식이 "도시의 중심부와 경치 좋은 곳에 권력기관 건물을 세우고 유흥장을 꾸리며 호화주택을 건설하고 거리마다 초고층 건물을 빼곡히 세우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국가의 도심부는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고 흥청거리게 하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차 넘치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일, 1992:9-10).

셋째, 북한의 도시계획은 구역 단위가 아닌 간선 가로(街路)의 역할을 강조한다. 북한은 도시 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거리를 가장 집중해야 할 설계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거리의 양 끝점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거리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나타내며(김기호, 2006:220-222), 가로망의 결절점마다 주요한 공공 영역이 자리 잡는다(이종호, 2013:20). 대규모 공공건물과 고층 아파트는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를 창출하는데 이용되며, 건물의 형태나 층수, 배치의 다양화를 통해 가로에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힘쓴다. 북한이 가로중심의 도시계획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도시 중심부의 이념과 사상을 널리, 멀리 확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선적(線的) 개발은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가시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로 성장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도시들에 비해 북한의 도시들은 평균적으로 인구가 월등히 적다.

넷째, 북한의 도시계획은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 District) 혹은 소구역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도시의 밀도를 낮추고 도시팽창을 억제하며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는 1935년 소련의 모스크바 재건계획 때 밀류친(Miliutin)이 처음 제안한 것이다. 이는 대중의 공공 생활체계를 일정한 단지단위로 묶는 것이다. 마이크로 디스트릭트는 자본주의 도시계획론에서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소련의 도시관련 학계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서양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싶어했다고 한다(남영호, 2014:239-240; 임동우, 2011:45-46).

사회주의적 소구역제는 북한의 경우 도시계획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생산과 거주, 소비, 여가 활동들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한다. 북한의 도시주거 형태 가운데 조립식 아파트나 하모니카형 주택이 대종을 이루는 것 역시 소구역제의 공동체적 근린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장세훈, 2005a).

끝으로 북한은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것 이상으로 도시의 건물과 시설들을 관리, 보존, 유지하는 '도시경영'을 중요시한다. 북한의 도시경영은 우리의 도시관리 개념과 유사하다. 북한은 2003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기에 훨씬 앞선 1982년에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경영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도시경영사업을 조직, 집행하는 기관으로 도시경영성을 별도로 두어 전국가적·전사회적 사업으로서 도시경영을 지도하고 있다. 도시경영의 대상은 건물, 상하수도, 도로, 하천, 공원 등 모든 생활환경으로 이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 북한은 '도시미화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도 했다.

도시경영이라는 북한식 도시계획의 특성은 국가주도의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나름대로 보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론적으로 도시계획의 유일한 주체는 국가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계획의 모든 것을 부담할 수는 없기에, 도시의 유지 및 관리의 측면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시운영에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도 없고 시민참여도 없다. 대신 북한에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경영에의 동참을 주민들의 도덕적 의무로 강조한다. 예컨대 북한은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도시경영에의 참여를 통해 한편으로는 애국정신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관리에 대한 국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북한과 '수도'이론

수도는 국가 내에 소재하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처럼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경우, 수도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 하지만 분권화된 봉건제하에서 유럽은 오랫동안 수도라는 개념을 갖지 못했다. 봉건제하에서 정치적 거점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었고 통일된 국가라는 지배단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도가 필요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다. 수도가 다시 중요해지는 것은 16세기 이후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였다. 절대왕정 시대를 거치며 수도는 한 국가의 대표도시로서 영토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근대 국가권력의 공간적 거점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수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면서도 그것과 구분되는 그 무엇이었다(Gordon, 2006:1). 그것은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계획이기도 하면서 소프트웨어 위주의 문화적 계획이기도 하다. 나폴레옹 3세 치하 오스만의 파리대개조 사업을 필두로 한 근대국가의 수도계획은 사통팔달의 대로를 만들고 육중한 공공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근대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장식하고 과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수도에 한 나라의 역사와 민족에 관련된 상징적 공간 및 의례가 집중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다카시, 2003:60-62). 일반적으로 근대국가의 수도는 민족주의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카리스마적 권력의 공간적 발현일 수도 있다(Vale, 2006:30-31). 계획적으로 건설된 수도일수록 지배권력의 적나라한 공간적 상징이 될 공산이 높다(Sonne, 2003:29).

북한과 그들이 현재 수도로 삼고 있는 평양의 관계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관계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근대국가 건설 및 발전 과정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하는 특단의 수도계획을 하지 않았다. 서울은 그저 '관습상의 수도'였을 뿐 근대국가들 대부분이 수도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던 사실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도가 "국가의 최고주권기관과 중앙정부가 자리 잡고 있는 도시" 혹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2000:478). 수도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특징짓는 얼굴"이라는 것이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59).

북한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김일성은 평양을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이며, 우리 혁명의 발원지"로 규정했다(김일성, 1981:622). 특히 전후 복구과정에서 김일성은 평양재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평양의 우선복구를 주장한 김일성은 평양에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자리잡고 있어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모든 로선과 방침이 세워지고, 인민

의 건국위업 수행을 위한 투쟁이 조직령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조동호, 2013:63 재인용). 북한이 평양에 대한 수도계획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는 계기는 김정일의 후계자 부상이었다. 권력의 부자세습 과정에서 '혁명의 수도'라는 평양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강조된 것이다(조동호, 2013:67).

북한체제와 평양의 관계는 극장국가와 공연무대의 그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강제적 물리력에 기반을 둔 '제도적 실체'(institutional reality)로 이해되지만, 인류학자 기어츠(Geertz, 1980)는 19세기 말 발리 섬의 왕실의례 연구를 통해 '극장국가'(theater state)라는 대안적 국가이론을 제시하였다. 극장국가에서 권력이란 '상호작용하는 상징의 체계'이자 '상호 작동하는 의미의 양식'으로서 국가운영의 핵심원리는 다름 아닌 연극이다. 이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는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나리오에 따라 연극에 동참하는 연기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극장국가적 속성이 강하다(다카시, 2003; 한석정, 1999; 권형진, 2011 참조).

북한체제는 전형적인 극장국가에 해당한다. 북한은 "식민지의 고통과 빨치산 투쟁의 기억"을 창조하고 "만주시대에 대한 국가적 서사"를 통해 국가 전체를 극장화 혹은 무대화하기 때문이다(권헌익 · 정병호, 2013:43-46).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장례와 추모의 정치"를 통해 극장국가적 성격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 메들리코트(Medlicott, 2005)는 "상징적 연출(symbolic performance)이 북한의 국가주권 생산을 매개하는 거대한 층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와다 하루키 또한 "김정일이 연출가이자 디자이너로 있는 북조선의 유격대국가는 바로 기어츠가 규정한 '극장국가'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고 주장한다(와다, 2002:156). 북한이 극장국가라면 평양은 극장국가의 핵심 공연무대다(전상인 · 김미영 · 조은희, 2015).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북한의 '수도' 평양

1. 도시연혁

2. 공간구조와 경관, 건축

3. 도시공간과 시민생활

III

북한의 '수도' 평양

III

1. 평양의 도시(계획)사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은 일제 강점기에는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해방 직후인 1946년, 평양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 의해 '특별시'로 지정되었고, 1948년 정권수립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임시수도로 등장하였다가 1972년에 북한의 '수도'로 지정되었다.[6] 2012년 현재 평양은 북한의 유일한 직할시로서[7] 2개의 군과 18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의 면적은 1,714㎢로 북한 전체의 1.4%를 차지하며 서울(605㎢)의 약 2.8배이다(통계청, 2014). 해방 이후 평양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8년 인구일제조사 당시 평양의 인구는 325만 5천명에 이르렀다. 북한에서 인구 백 만명이 넘는 도시는 평양 한 곳이며,[8] 2008년 기준 함흥시의 4.23배(76만 9천명), 개성의 10.6배(30만 8천명)로 뚜렷한 종주화(宗主化)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북한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 (단위:천명)

	1940년	1967년	1972년	1980년	1981년	1987년	1993년	2008년
평양	286	1,555	1,847	1,842	1,907	2,355	2,741	3,255
함흥	75	424	489	594	613	701	710	769
개성	72	141	326	107	112	331	334	308
평성	9	28	109	199	212	239	273	284
청진	198	226	407	509	531	520	585	668
원산	79	226	272	233	242	274	300	363
신의주	61	170	217	271	276	289	326	359
사리원	35	85	85	174	187	221	254	308

(출처: 조남훈, 2013)

6 물론 북한이 평양을 자신의 수도로 정한 것은 임의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적 국가이며, 이런 점에서는 서울 이외에 수도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체제가 자신의 수도를 평양에 두고 있다는 의미 정도이다.

7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에는 6도 9시 89군으로 이루어져있었으나, 수차례의 조정을 거치면서 2012년 현재 1개 직할시(평양), 2개 특별시(나선, 남포), 9개도(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로 구성되어 있다(통계청, 2013).

8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2개(함흥, 청진),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18개(남포, 원산, 신의주, 단천, 개천, 개성, 사리원, 순천, 평성, 해주, 강계, 김책, 희천, 구성, 라선, 혜산, 신포, 송림)이다(조남훈, 2013).

북한의 인구이동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평양의 인구이동 비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5년 전과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96.55%로서 5년 전과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은 3.45%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평양은 91.43%만이 5년 이상 계속하여 평양에 거주함으로써 8.57%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이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에 비춰볼 때 평양의 인구이동률이 지방의 인구이동률보다 2-3배 높은 것은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수치다.

〈표 3〉 시도별 출신지(5년전 거주지)와 정착지(현 거주지) 인구비율(단위: %)

구분	5년 전과 동일 거주지			5년 전과 다른 거주지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국	96.55	96.87	96.27	3.45	3.13	3.73
평양	91.43	92.35	90.60	8.57	7.65	9.40
양강	97.08	97.23	96.94	2.92	2.77	3.06
함북	96.90	97.15	96.67	3.10	2.85	3.33
함남	98.06	98.39	97.78	1.94	1.61	2.22
강원	95.71	96.26	95.23	4.29	3.74	4.77
자강	98.36	98.28	98.43	1.64	1.72	1.57
평북	97.83	98.11	97.59	2.17	1.89	2.41
평남	97.03	97.17	96.90	2.97	2.83	3.10
황북	97.44	97.39	97.48	2.56	2.1	2.52
황남	97.61	97.98	97.28	2.39	2.02	2.72

(출처: 정창무, 2012)

평양은 6·25전쟁 동안 사실상 초토화되었다. 북한측 자료에 따르면 8,700여개의 공장과 기업소, 60여만 호의 주택, 5,000여개소의 학교, 1,000여개소의 병원과 진료소, 260여개소의 극장과 영화관, 670여개소의 과학연구기관 및 도서관, 수천개소의 문화후생시설들 등이 전쟁으로 인해 소실 내지 파괴 되었다고 한다(리화선, 1993b:329). 전시(戰時)인 1951년 1월부터 평양복구개건사업을 시작한 김일성은 평양을 사회주의 이상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같은 해 12월에 도시건설성을 설치하면서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의 폭격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 사회주의 이상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전시의 평양복구사업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왕기, 2000:136; 장세훈, 2005b:233-234).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7월부터 북한은 평양시 복구사업을 본격화했다. 평양시복구위원회를 조직한 다음 위원장을 김일성이 직접 맡았다(장세훈, 2005b:244). 김일성은 일제 강점기 이래의 평양을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기형적이며 비문화적"인 도시로 규정하면서, 단순한 원상태로의 복구가 아니라 "민주수도 평양을 전쟁 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웅장하고 현대적으로" 건설하고자 했다(리화선, 1993a:341; 김일성, 1980a:278). 6·25전쟁에 의해 초토화되었기에 평양은 역설적으로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장세훈, 2005b). 또한 김일성은 조속한 평양 재건을 통해 미

국에게 북한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김일성, 1980a:276; 김정일, 1995:59,60-61).

평양을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에서 유학 중인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대표적으로 모스크바 건축아카데미 출신의 김정희는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에 입각한 '평양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다핵화를 통한 평등한 공간위계,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조성을 통한 도농 간 격차 해소, 격자형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단위의 도시구조가 핵심 내용이었다. 사회주의 이상도시 평양 건설은 196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주요 도로가 확장되었고, 대형 공공 및 문화시설이 건립되었으며, 광장 및 기념비 건축이 늘어났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많이 지어졌다.

1970-80년대 들어 북한은 이념적으로 소련식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선회하였다. 북한의 도시계획 이념도 사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적 침체기를 맞이하여 북한은 모든 도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지방도시 발전의 희생과 지연을 전제로 평양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꾀하면서 여기에 도시 자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자조적 원칙을 가미한 이른바 '주체적 도시화' 전략이 등장했다. 1980년대 평양은 혁명적 수령관을 반영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부각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말하자면 주체사상의 확립 이후 평양의 독주가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이 시기에 유독 평양에만 인민들의 군중집회, 열병식과 경축야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심부 상징광장과 기념비적 공공건물,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넓게 뻗어나가는 주요 간선 거리와 고층 주택 등이 크게 늘어났다(백과사전출판사, 1998:267-268).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외국인 대상 고급호텔의 건축도 활발해졌다. 이는 특히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를 앞두고 일어났다. 당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양거리를 새롭게 꾸리기 위해 지방의 건설인력과 건축자재는 몽땅 평양으로 집중되었다고 한다(장세훈, 2006:197).

미증유의 자연재해와 동구권 붕괴가 초래한 1990년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특별 배려는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1998년에는 '수도평양시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평양시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평양시 관리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적극적인 평양 건설 및 정비의 숨은 의도는 무엇보다 대외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 평양을 치장함으로써 자주·자립 강국으로서의 국가적 존엄과 권위를 과시하고자 한 것이다. 외부인들에게 평양은 북한 경제의 수준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대한 상징'이었던 셈이다(조동호, 2013:49).

평양의 특권적 지위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02년에 김정일은 '21세기형 수도 건설'을 제안하였고,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내각 소속 '수도건설부'를 국방위원회 산하 '수도건설사령부'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은 2012년 4월 '수도건설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총리급 위원장을 선임하였다. 또한 2014년 신년사에서는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양은 3대 권력 세습과정을 거치면서 극장국가의 공연무대라는 용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평양시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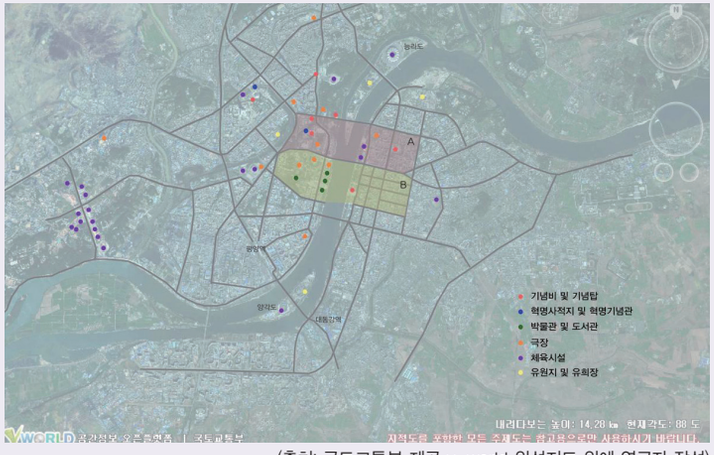
(출처:연구자 작성)

2. 평양의 공간구조와 건축

평양직할시는 대동강을 중심으로 중심부의 본평양(本平壤), 강 동쪽의 동평양(東平壤), 강 서쪽의 서평양(西平壤)으로 나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2012년 현재 18개 구역과 2개 군(강동군, 강남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역은 우리나라 대도시의 구(區)에 해당한다. 도심부를 중시하는 북한식 도시계획론에 따라 평양의 중심인 본평양의 중구역에는 정치 및 행정기관에 더하여 광장, 극장, 박물관 등 인민을 위한 정치, 문화적 행사의 공간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동평양은 대동강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 낙랑구역, 사동구역, 역포구역 등으로 구분되며, 서평양은 대성구역, 서성구역,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만경대구역 등으로 나뉜다. 대동강에는 능라도, 양각도, 두루섬 등의 섬이 있고, 동평양과 서평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능라교, 옥류교, 대동교, 양각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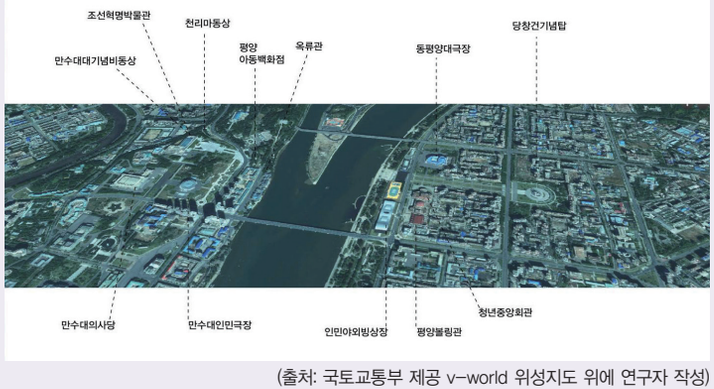
평양의 도시화는 주요 거리가 개선·확장하면서 주변지역이 새로운 구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쳤다(임동우, 2011:103). 이는 북한의 도시계획이 구역 보다는 가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

〈그림 2〉 평양의 공간 구조 및 주요 공간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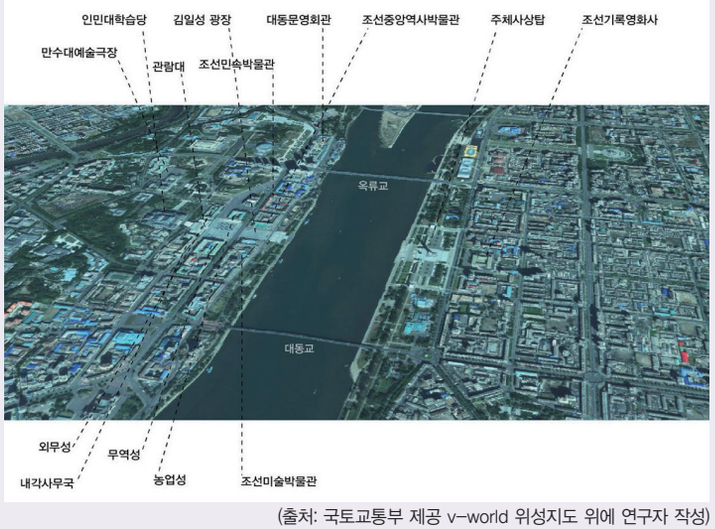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연구자 작성)

〈그림 3〉 A구역(중구역 및 대동강 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연구자 작성)

〈그림 4〉 B구역(중구역 및 동대원 구역)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연구자 작성)

기 때문이다. 평양 도심부의 정치적 및 사상적 상징성이 핵심 가로를 통해 멀리, 그리고 넓게 퍼지는 공간배치인 것이다. 평양의 주요 거리들을 위치별로 살펴보면, 동평양에는 문수거리를 비롯하여 동대원거리, 새살림거리, 청년거리, 대학거리 등이 있고, 서평양에는 개선문과 연결되는 개선문거리와 모란봉거리, 김일성광장과 연결된 승리거리와 만수대거리 등이 있으며, 대동강의 샛강인 보통강을 따라 창광거리, 천리마거리, 낙원거리 등이 있다.

〈표 4〉 조성 시기별 평양의 거리 형성

시기별	형성 거리
1950년대	청년거리, 개선문거리
1960년대	모란봉거리
1970년대	천리마거리, 비파거리, 낙원거리
1980년대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1단계, 청춘거리
1990년대	광복거리 2단계, 통일거리
2000년대	만수대거리, 창전거리

〈그림 5〉 시기별 평양의 거리 형성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연구자 작성)

〈그림 6〉 모란봉 거리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연구자 작성)

평양의 주요거리와 대표적인 상징 건축물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 건설된 모란봉거리는 개선문으로부터 만수교까지 약 1km인데, 1970년대에 금수산거리라고 불리다가 1982년에 다시 모란봉거리가 되었다(리화선, 1993b:43). 모란봉거리는 교통체계상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모란봉의 경관을 가리지 않으면서 개선문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하는데 역점이 주어졌다. 개선문 광장의 넓은 공간에는 개선영화관 등 규모가 큰 건물들을 배치하고 만수교와 연결되는 공간에는 둥근 지붕의 인민군교예극장과 쌍탑으로 된 15층의 모란봉여관을 마주보게 배치하여 거리의 시작과 끝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북한식 도시계획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냈다.

비파거리는 평양 중심부와 서평양을 연결하는 간선거리(총 2.8km)이다. 비파 거리는 주어진 자연지형과 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되었는데(김기호, 2006:226-228), 4.25문화회관, 18층의 서평양여관, 10층 탑식 아파트를 배치함으로써 화려하고 웅장한 느낌이 들게 만들고자 하였다. 천리마거리는 중구역 보통문으로부터 동성다리를 지나 낙랑구역 충성다리에 이르는 4.4km 거리로서, 197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건설되었다. 천리마거리의 서쪽 면은 보통강 기슭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건물을 여유롭게 배치하였으며 특히 20여개의 크고 작은 합각지붕으로 구성된 인민문화궁전은 천리마 거리 입구에 위치하여 거리의 역동성을 더한다. 동쪽 면은 주로 8~12층 아파트

를 병렬로 배치하고 그 사이 사이에 12층, 15층의 아파트를 두어 높낮이에 변화를 두었다. 특히 아파트의 저층부에는 상점들을 길게 연달아 배치하여 거리에 생동감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김기호, 2006:224-226; 리화선, 1993b:45-46).

천리마거리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건설된 낙원거리는 보통강구역 보통강역전과 낙원다리를 잇는 거리(3km)다. 낙원거리 주변건물의 평균 층수는 8-10층이며,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낙원다리 입구에는 20층짜리 아파트를, 그리고 보통각역쪽에는 18층의 ㅅ자형 평면 아파트를 배치하였다(리화선, 1993b:173). 창광거리는 평양역에서부터 보통문에 이르는 거리로, 중구역에 위치한 북한 최대의 번화가이다. 1980년 이전까지는 2~3층짜리 단칸방 공동주택이 밀집해있던 낙후지역이었다.

김정일은 창광거리 건설을 "건설부문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는 시발점"으로 간주했는데(리화선, 1993b:175), 실제로 창광거리는 형태와 색채 등의 측면에서 보다 대담하고 현대적인 경관을 보인다. 창광거리에는 15~40층의 고층아파트 30여동과 더불어 쌍탑 형태의 고려호텔, 평양역전백화점, 락원백화점, 창광원, 고려항공 본점 등 주요 소비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려호텔 앞에는 '창광음식점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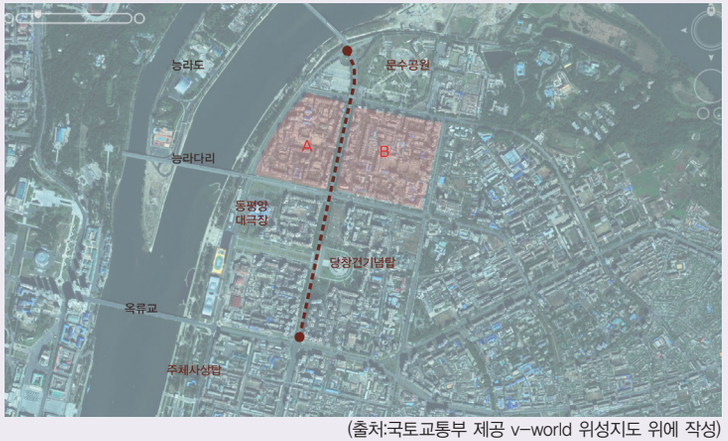
문수거리는 대동강구역 문수네거리로부터 문수무궤도전차 주차장까지 3km에 이르는 거리로서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거리 주변으로 다양한 층고의 아파트와 함께 청년중앙회관, 동평양대극장, 대성백화점 등을 비롯한 각종 상업·편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문수거리는 대동강 건너편에 위치한 만수대대기

〈그림 7〉 천리마거리

(출처: 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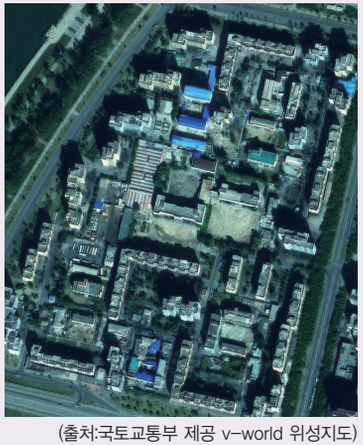
〈그림 8〉 낙원거리 전경

〈그림 9〉 문수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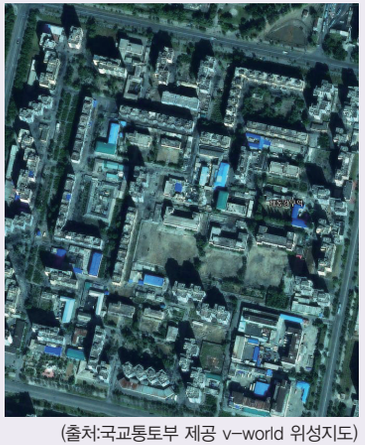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작성)

〈그림 10〉 A구역 아파트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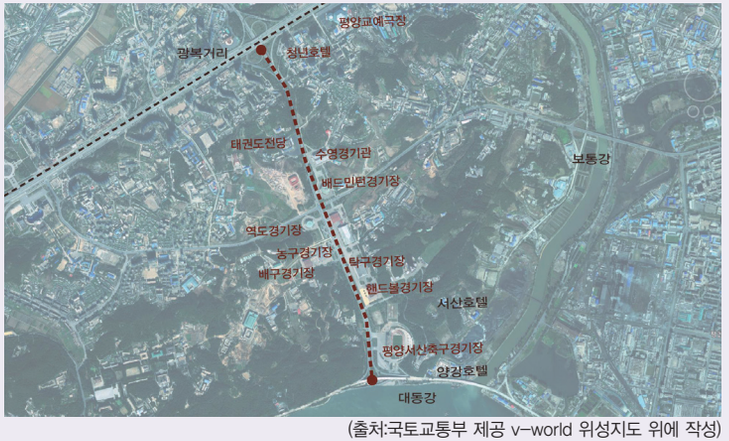
〈그림 11〉 B구역 아파트



(출처:국교통토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념비와 연계되도록 설계되었고, 인근의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등 기념비적 건축물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 2013년 10월에는 문수거리 북쪽 끝에 북한 최대 규모의 실내외 물놀이장인 '문수물놀이장'이 개장했다.

〈그림 12〉 청춘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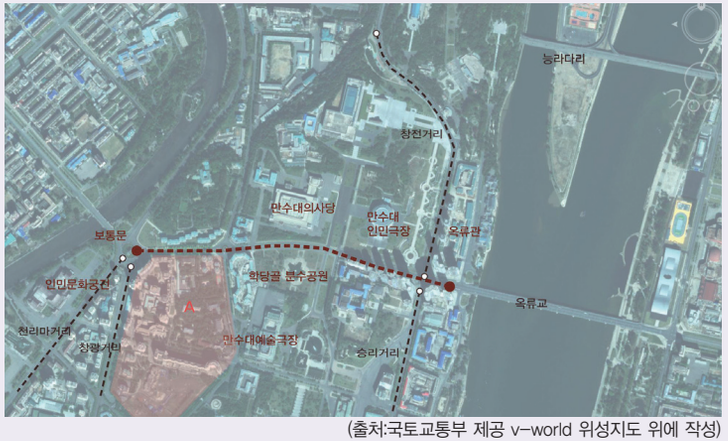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작성)

청춘거리는 평양-남포 고속도로와 광복거리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거리로서 각종 체육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기념하기 위해 청춘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체육시설 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였는데, 현재 청춘거리체육촌은 북한의 종합 체육문화 거점이다. 한편, 광복거리는 광복역 앞 팔골 사거리에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진입로 입구에 이르는 5.4km 구간이다. 도로 양쪽에는 12층~30층의 아파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교예극장 등의 문화시설과 강반석혁명유자녀학원 등의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역시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두고 확장·정비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 건설된 가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만수대

거리다. 만수대거리는 보통강과 대동강의 옥류교를 연결하여 평양의 중심부인 중구역을 가로지른다. 이 가로는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설정한 2012년을 목표로 평양에서 추진된 대규모 뉴타운개발 혹은 주택 10만호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었다. 창전거리는 평양대극장에서 개선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승리거리와 만수대에서 옥류교 방향으로 가는 만수대거리가 교차하는 사거리를 기점으로 펼쳐져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조선혁명박물관, 만수대의사당, 천리마동상, 옥류관 등으로 둘러싸인 창전거리 건설은 김정일의 마지막 유훈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창전거리는 평양의 새로운 부촌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인민극장과 초고층, 고층아파트들, 각종 봉사시설들이 희한하게 솟아올랐으며 조

〈그림 13〉 만수대거리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v-world 위성지도 위에 작성)

형화, 예술화, 공원화가 훌륭히 실현되어 주체적인 건축미학이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북한은 선전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2.6.20.).

평양의 가로가 개발되면서 함께 건설된 것은 바로 아파트이다. 우리나라도 전체 주택의 60% 내외가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가 많지만, 북한 역시 아파트를 많이 건설했다. 북한의 아파트는 특히 평양에 밀집해 있다. 2009년 현재 평양의 아파트 비율은 35.2%로서 평남을 제외한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가 10% 미만이라는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이종호, 2013:55).

한편, 남한의 경우 아파트는 도시경관의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아파트가 오히려 도시와 거리를 장식하는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평양의 아파트가 거리의 조성 시기에 따라 규모나 형태를 달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말하자면 평양에서 가로와 아파트는 도시공간에서 경관적으로 서로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평양의 고층의 아파트는 거대 경관을 생산하여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훌륭한 인공물로 간주된다(홍민, 2014:112). 남한의 아파트가 단지형 중심이라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가로형 위주라고 대비할 수 있는 대목이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초기 가로들은 주로 4-6층의 아파트

들이 길을 따라 건설되고, 아파트 아래층에는 다양한 편의봉사 시설들이 연속적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1950-60년대에 건설된 거리들은 거리에 건물들을 사선 혹은 직각이 되게 배치하는 등,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거리 설계를 시도하였다(리화선, 1993a:345-348). 1970년대 이후에는 높이와 규모, 지붕의 형태 등이 서로 다른 아파트들을 혼합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단순히 병렬식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혼합 배치함으로써 보다 더 역동적인 거리 경관을 조성하고자 했다.

또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를 ㅅ자형, 톱날형, ㄱ자형 등 다양한 평면으로 건설하였고, 이들을 들쭉날쭉 배치하는 정도를 넘어 한 개의 건물 자체를 여러 차례 꺾어 전개함으로써 가로를 보다 입체적이고 웅장해 보이도록 하였다. 특히 고층 건물들은 한쪽에 무리로 배치하고 다른 편에는 이와 대조를 이루는 낮은 건물들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거리의 입체감을 고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리화선, 1993b:154-158). 또한 저지대에 중저층 건물을, 그리고 고지대에 고층건물을 배치하는 등 지형을 이용하여 건축적 대조를 극대화하기도 하는데, 이는 남한의 가로 설계가 고지대에는 고층건물 대신 저층건물을 배치함으로써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김신원, 2007:185-186; 리화선, 1993b:163-170). 요컨대 평양의 가로경관을 이야기할 때 결코 아파트를 빼고 말할 수는 없다.

〈표 6〉 시기별 평양의 주요 건축물 및 조형물 건설 현황

시기	주요 건축물 및 조형물
1950년대	평양역사(1950년 착공), 모란봉극장(1954), 조선중앙역사박물관(1954), 조선미술박물관(1954), 대동문영화관(1955.09)
1960년대	평양대극장(1960), 옥류관(1960.08), 천리마동상(1961), 평양소년학생궁전(1963), 인민군교예극장(1964)
1970년대	조선혁명박물관(1972),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1974), 만수대기념비(1972), 평양체육관(1973), 인민문화궁전(1974), 4.25.문화회관(1975), 만수대예술극장(1976)
1980년대	빙상관(1982), 인민대학습당(1982), 평양개선문(1982), 김일성경기장(1982), 주체사상탑(1982), 만수대의사당(1985), 고려호텔(1985), 평양교예극장(1989), 청년중앙회관(1989), 동평양대극장(1989), 청년호텔(1989), 평양국제영화관(1989), 5.1.경기장(1989)
1990년대	금수산태양궁전, 3대혁명전시관, 당창건기념탑(1990),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1993)

북한이 '수도' 평양

북한이 평양에 대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역점을 둔 것은 정치문화행사의 중심지인 광장이었다. 광장은 각종 문화 및 경축행사와 야회 및 군중대회가 벌어지는 장소로서 주변의 행정기관, 도시 서비스 시설, 집합 주택들과 어울려 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평양의 광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앙 광장인 김일성 광장이다. 총 7만 5천㎡에 이르는 김일성 광장은 소위 '나라길시작점'인 도로원표(道路元標)가 위치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광장에서는 당대회와 북한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집회를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을

추모하는 기념행사, 주요 정치문화적 행사, 경축야회, 무력시위와 열병식 등 국가적 의미를 가지는 주요 국가 행사들이 개최된다(국가관광국, 1999:20).

전후 1950년대에는 광장과 함께 역사(驛舍), 학교, 극장, 병원, 호텔 등 공공건물들도 다수 건립되었다. 평양역사(1954),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병원, 대동문영화관(1955)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지원 하에 건설된 것으로 동유럽 건축 양식, 특히 신고전주의 양식이 도입되었다.(공간사, 2013:28).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한 건축물을 평양 곳곳에서 만들었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를 "현대적인 조선식 건축이 새롭게 창조되고 실현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9]

현대화된 '조선식' 건물은 1960년에 완공된 평양대극장이 대변한다. 이는 전통적인 '조선식' 지붕을 씌우면서도 강철과 콘크리트 등 현대적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 기능을 다양화하는 방식이다(리화선, 1993a:385-386). 이른바 민족건축 양식의 또 다른 실현은 같은 해에 완공된 옥류관이다. 대동강 기슭에 위치한 옥류관은 절벽에 의지하여 축대를 높이 쌓고 그 위에 2층으로 된 '조선식'의 건물을 놓았다. 북한은 옥류관을 대동강의 풍치와 '조선식' 건축이 입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자랑하고 있다(리화선, 1993a:401-402).

각종 조형물도 도시공간의 주요 요소다. 이 가운데는 6·25 전쟁과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는 것도 있다. 전자의 경우 1960년대의 대표적인 조형물은 인민군 열사탑과 우의탑이다. 인민군 열사탑은 6·25전쟁에서 사망한 군인들을 추모하는 것이고, 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을 기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독려하는 조형탑 가운데 1960년대를 대표하는 것은 천리마동상이다. 만수대에 세워진 천리마동상은 1957년부터 시작된 대중운동인 천리마 운동을 형상화하였다. '붉은 편지'를 추켜들고 있는 노동자와 볏단을 안은 여성농민이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1961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 제막되었다.

1960년대가 사회주의 양식과 전통적 요소 간의 조화를 모색했다면, 1970년대 들어와서는 '우리식'으로 도시 공간을 건설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크게 부각되었다(리화선, 1989:267). 이 시기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김일성 우상화 및 후계자 결정이 가시화될 뿐 아니라 소련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사회주의 노선에 휘둘리지 않은 채 자력갱생의 발전전략이 강조된 무렵이었다(장세훈, 2004:285). 그 결과, 체제 강화용 대기념비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전국에 대량으로 건설되었는데,

[9] 북한에서 '조선식 건축'은 민족건축양식을 건물의 용도, 현대적 재료 및 공법에 맞게 개조·발전시킨 것을 의미한다(리화선, 1993a:386).

평양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1972년 김일성 60세 생일을 기념하여 건립된 만수대 대기념비는 전례 없는 규모와 폭을 가진 기념 건축인데, 한 가운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자랑하는 김일성 동상이, 그 왼쪽에는 항일혁명 투쟁상, 오른쪽에는 사회주의혁명 건설상이 세워졌다.

김일성 동상 제작은 이미 1947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북한전역에 확산되는 계기는 1972년 만수대 김일성 동상건립이었다. 만수대 김일성 동상 제작과정을 지도한 인물은 후계자 김정일이었다(김영나, 2004:159). 북한은 2011년 김정일 사후 만수대 대기념비에 김일성 동상과 같은 크기의 김정일 동상을 세워 현재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의 경우도 1948년 8월에 처음 건설되었다가 만수대 대기념비 설립과 함께 1972년 4월에 새로 개관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1953년 8월 중구역 해방산동에 '조국해방전쟁기념관'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74년 4월 서성구역에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건설되었다.

1980년대는 후계자 김정일의 주도로 평양에 기념비적 건축물이 가장 활발하게 등장하는 시기였다. 김정일은 이를 70세 생일을 앞둔 김일성에게 바치는 '충성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또한 이 시기는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앞둔 때이기도 했다. 김정일은 기념비적 건축물의 건립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했고 전세계에 평양을 예술성을 갖춘 도시로 선전하고 싶어 했다. 이 과정에서 평양의 상징성은 더욱 더 강화되었다. 세계 제일의 규모를 자랑하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인민대학습당, 김일성 경기장 등이 모두 이 시기에 건립되었다.

주체사상탑은 1982년 4월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기념해 대동강 동쪽 기슭에 세워졌다. 주체사상탑은 높이 170m로 주체사상탑은 봉화, 탑신, 3인 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화는 높이 20m, 무게 46톤으로 알려진다. 150m의 탑신은 봉화의 웅장성을 건축적으로 보조하는데, 탑신의 앞뒷면에는 글자폭이 4.2m에 이르는 주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탑신 정면에는 높이 30m에 이르는 3인의 군상, 곧 노동자, 농민, 인테리가 각기 망치, 낫, 붓을 들고 당 마크를 형상하고 있다고 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86:131-133).

같은 시기 모란봉 기슭에는 개선문이 건립되었다. 개선문의 높이는 60m이며 너비는 50.1m, 폭은 36.2m이다. 북한의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11m 더 높고 너비도 5m 더 넓어 세계에서 가장 크다. 개선문 남쪽의 양쪽 기둥에는 '1925'와 '1945'라는 숫자를 금빛으로 새겨놓았는데, 이는 각각 김일성이 14세 때 조국 광복을 위하여 만경대 고향집을 떠난 해와 조국의 해방을 이루고 개선한 해를 각각 뜻한다고 한다. 개선문의 중심부문인 무지개문은 김일성 생일 70돌을 상징하는

70여개의 진달래꽃으로 장식되었다.

1982년에 건설된 인민대학습당은 북한 최대의 종합도서관으로 연건평 10만㎡이며 높이 63m에 달하는 10층의 소위 '조선식' 건물이다. 1979년 12월 2일에 착공하여 1년 9개월 만에 완공되었다. 김일성은 "인민대학습당의 건축양식은 반드시 조선식으로 되어야"한다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민족건축양식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살렸다는 자체 평가다(이윤하, 2010c:154). 인민대학습당은 "전체 인민이 공부하는 대전당"이라는 의미인데 하루 수용능력이 1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국가관광국, 1999:20).

북한은 평양의 중심부를 대중적인 정치·문화적 행사가 일어나 항상 사람들이 흥성거리는 인민적인 중심부로 형성하고자 하였는데, 인민대학습당의 건립을 통하여 마침내 평양의 중심부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대동강을 축으로 서쪽에는 김일성 광장과 인민대학습당을, 동쪽에는 주체사상탑을 배치함으로써, 웅장한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혁명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강화했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1953년 김일성 광장이 조성 된 후, 1980년대에 이르러 인민대학습당과 주체사상탑이 준공되면서 김일성 광장 종합계획은 30여년 만에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윤하, 2010b:149-150)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개선문 등이 보다 직접적인 정치적 상징물이라면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 혹은 국제적인 시선을 의식한 건축물도 이 시기에 많이 지어졌다. 동평양대극장, 청년극장, 능라도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 교예극장, 학생소년궁전, 청춘거리경기장, 빙상관, 평양국제영화회관 등이 대표적이다(이주철, 2003:104-105). 이 과정에서 주체건축론 대신 건축의 국제적 경향성을 따르는 현상도 일부 나타났다(안창모, 2012:139). 이 시기에는 특급호텔이 대거 건설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국제도시화를 표방한 평양에서 1985년에 완공된 45층짜리 쌍둥이 빌딩 고려호텔은 그것의 상징적 건물이다. 양강호텔과 청년호텔이 세워졌고, 105층 유경호텔도 89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시기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유경 호텔의 공사 중단이 이를 웅변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체형 도시화' 전략을 통해 지방도시의 희생을 전제로 평양의 중

〈그림 14〉 능라도 경기장

〈그림 15〉 류경호텔

심부 건설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했다. 이는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건재함을 외부에 과시하려는 욕구의 반영이며, 극장국가 북한에서 평양이 차지하는 공연무대적 면모를 적극 활용하여 인민들을 체제와 결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서 국가의 대규모 건설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유경호텔 공사의 재개는 물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에 맞춰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사업이 착수되었다. 평양 전역에서 군인은 물론 대학생들을 대거 동원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는 최근 2년간 대규모 건설성과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며 건축 및 건설부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평양에는 건축종합대학의 인기가 상승하고 건축관련 직업이 선호된다는 소식이다.[10]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평양의 건축 및 건설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평양역과 순안공항의 현대화 공사다.[11] 순안공항과 평양역 개보수는 '나라의 관문'을 새롭게 고쳐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각종 상업 및 유희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변화다. 북한은 2015년 1월, 중국과의 합작을 통해 동평양상업거리 건설을 시작하였다.[12] 평양만경대유희장, 능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 유희시설은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북한 인민들의 잠재적 불만을 음식물이나 오락 등으로 돌리고자 하는 독재체제의 전형적인 '빵과 서커스'(bread and circuses) 전략으로 해석된다.

3. 도시공간과 시민생활

평양의 특별한 지위는 비단 공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구의 구성이나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도 발견된다. 평양에는 북한에서 가장 권력에 가까운 핵심 계층이 거주하며, 성분이 나쁜 사람이나 장애인들은 거주할 수가 없다. 〈표 8〉에서처럼 북한은 전

10 "〈북한도 요즘 입시철…올해 인기 대학은〉"(2013년 12월 18일자 연합뉴스) 또한 북한은 2013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건설부문일꾼 대강습을 열고 건설 기술자들을 독려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에도 '주체건축역사에 뚜렷한 자국을 새긴 영웅들'이란 기사를 통해 건축가들을 치켜세웠다.

11 북한 철도성은 평양역 개보수 외에 철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언급하고 "현대적인 철도차량들을 연구개발한다"며 철길을 중량화, 현대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조선신보 北, 올해부터 평양역 현대화 사업"(2014년 1월 21일자 연합뉴스)

12 "北, 中과 합작해 동평양 상업거리 착공"(2014년 1월 16일자 연합뉴스)

쟁 이후 지속적으로 인민들에 대한 성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크게 구분된다. 평양은 핵심계층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평양에서는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전 가족이 지방으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도 평양을 떠나야 한다.

1997년에 제정된 공민등록법에 의해 북한의 다른 주민들은 17세 이상이 되면 공민증을 발급받는데, 평양시민만 평양시민증을 발급하게 되었다. 평양시민증을 별도로 발급한데에는 평양시민과 지방주민을 구분하고 평양으로의 인구유입을 막는 목적도 있다. 평양시민증은 말하자면 북한에서 특권의 징표다. '평양공화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평양 시민은 북한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혜를 받는다(이주철, 2003:106). 평양시민들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식량이나 생필품 공급에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았다. 북한은 '배급받는 평양'과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북한'으로 구분해도 과언이 아니다(조동호, 2013:54). 이 밖에 도시가스, 중앙난방, 문화휴식 시설 등에 있어서도 평양시민들은 지방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린다.

이렇듯 평양시민들은 국가로부터 혜택과 관리를 동시에 받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에 대한 우월감이 체제에 대한 자발적 충성으로 이어져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이우영, 2013). 하지만 평양시민들에게는 특혜에 상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치 행사에 참여해야하는 의무가 강제적으로 주어지기도 한다. 평양 시민들에게는 일반적인 북한 주민에 비교하여 추가적인 의무나 일과들이 부여되는 것이다(이우영, 2013:44). 그리고 이는 평양 도시공간의 상징적 기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표 8〉 주민성분조사사업(통일연구원, 2009:331)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차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적위대의 사상결속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 3대, 처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통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 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1.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구분	시기	내용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 자료를 과학하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 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 교체
공민증 교체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도시공간의 차원에서 평양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의무는 크게 정례 및 비정례 행사에의 강제동원과 일상생활에서의 의무 봉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양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가의례 행사에는 최고 지도자가 제작자이자 주연배우, 당과 군의 간부들은 연출가, 선전선동분야의 다양한 예술전문가 집단은 극작가, 안무가, 조연출, 무대감독, 조연 그리고 군인과 학생을 포함한 모든 인민은 엑스트라, 무대 보조원, 관객으로 참여하게 된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답사행군과 참배행사, 생애 과정마다 상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통과의례,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상징의례에 참여하면서 개인과 지도자와의 관계를 의미화하고, 집단적 삶의 방식과 문화적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된다(정병호, 2010:8-9). 그것의 대표적 현장이 바로 평양인 것이다.

정례행사의 대표적인 경우는 태양절 행사다. 태양절은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기념하는 북한의 최대 명절이다. 1974년 4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태양절을 북한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였으며, 1997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3주기 때 주체연호 사용과 함께 이 날의 위상은 더욱 더 격상되었다. 태양절의 축하행사는 평양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평양미술축전, 김일성화전시회, 우표전시회, 만경대상 체육축전, 조선인민군 청년군인 웅변대회, 국가도서전람회, 만경대상 국제마라톤대회와 전국청소년 만경대 고향집 찾기 행군 등이 그것이다.

평양에서는 당창건일(10.10), 인민군창건일(4.25), 전승기념일(7.27), 태양절(4.15) 등 국가기념일에 대규모 퍼레이드가 연례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나 미사일 발사 성공 기념식,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둘러싼 규탄대회. 외국 손님에 대한 연도환영 등 비정규적 집회도 수시로 개최되는 현장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군중대회의 시발지도 평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컨대 평양의 중심부에는 대규모 국가의례 및 행사가 연중무휴로 열리고 있으며, 평양주민들은 그 상징적 국가의례 행사에 주연 또는 관객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정치적 집회는 지방에서도 있다. 하지만 빈도에 있어서는 평양이 압도적이다. 평양시민들은 보통 일 주일에 한번 정도, 연평균 3-40회 정도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며, 특히 10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사들이 시작되기 전에는 외장재 바르기, 화단과 놀이터 정리, 보수 등 도시 미화작업이 있어서 사실은 상시 동원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평양시민들에게는 정치행사에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참석여부에 따라 상품권 구입이나 고급식당이용권, 문화유원지, 극장영화관 관람 예비권 등을 공급하여 참가를 독려한다고 한다. 평양시민들은 정치행사에 일상적으로 참석해야하기 때문에 가정에는 행사참가용 부채, 지화꽃다발, 가발 등이 상비되어 있는 실정이다(이우영, 2013:45-46).

김일성 광장을 위시한 평양 일대에서는 위와 같은 정치행사 뿐 아니라 문화적이거나 일상적 행사들도 의도적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합창대회, 체육대회, 민속놀이, 불꽃놀이 등 평양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적 활동은 궁극적으로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정치사회화의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외부세계에 북한의 현실을 호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평양시민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다르다.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닦는 '정성작업'이다. 이와 같은 '정성작업'은 평양 시민들에게 더 많이 부여되는 일과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양에 건립된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지방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양시민은 일반 주민과는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가로, 연중 평양시 전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군중대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치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시민들의 다양한 행사의 빈번한 참여는 주민과 정권과의 일치 또는 주민들 간의 통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이우영, 2013:47) 이는 곧 의례를 통한 사회적 통제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평양시 주민들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을 제공한다.

하지만 평양시민들의 실제 일상생활이 지배권력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는 의문이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념과 목적을 부응하는 '공간의 재현' 방식을 통해 도시를 계획하지만, 그리고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와 같은 위로부터의 의도에 따라 '공간적 실천'을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재현의 공간'을 형성할 여지는 적지만 여전히 열려있다. 인구의 공간적 유동성 증대와 사이버 공간의 확대, 장마당과 같은 시장공간의 형성, 주택사용권의 사유화에 따른 사적 공간의 증가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내부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북한의 지방도시들

1. 함흥
2. 개성
3. 평성

IV

북한의 지방도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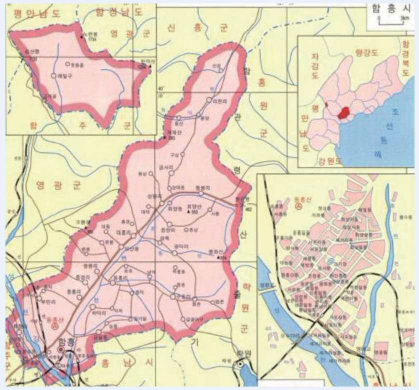
IV

1. 함흥

1) 도시 연혁

함흥을 북한의 지방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함흥은 2008년 현재 인구가 77만 명 정도로서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둘째, 함흥은 함경도의 대표 도시이자 함경남도의 도소재지이다. 함경도는 북한 현대사에서 평안도의 라이벌이라는 점에서 함흥의 도시사는 흥미를 끈다. 셋째 함흥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분단 이후의 도시발전의 향방에 관심이 간다. 끝으로 함흥은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도시라는 점에서 북한의 공업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16〉 함흥시 위치도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12」,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46)

함흥지역은 삼국시대 이래 관북지역의 주요 곡창지대였다. 함흥의 원래 지명은 함주였지만 조선시대 태종16년(1416년)에 함주가 흥하는 고장이 되라는 뜻에서 함흥부로 승격되었다. 1896년에 전국 13도제가 실시되면서 함흥군은 함경남도의 도소재지가 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 함흥은 근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일제는 함흥을 관북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발전시켰다. 함흥에는 대규모 공장이 5개나 세워졌고, 이를 위해 주변에는 발전소도 4개가 만들어졌다. 이렇듯 함흥은 일찍이 지역의 거점도시이자 공업도시를 경험했던 것이다.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 이후 함흥은 함경남도 도소재지로 계속 남아 있었다. 함흥은 6·25전쟁 때 대부분의 공장과 주택이 파괴되었다. 전후 함흥의 도시복구는 주로 동독의 도시설계 기술자들이 맡았다. 이들에 의해 함흥은 바둑판형 계획도시로 탈바꿈했고, 그 과정에 동유럽과 같은 이국적인 도시풍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홍민, 2012). 아직도 함흥에는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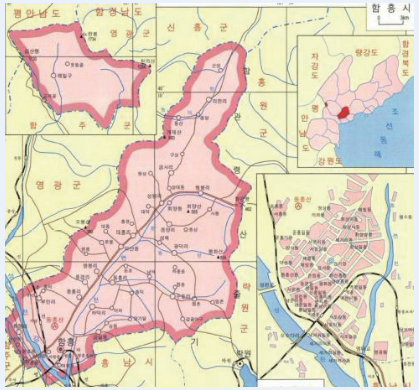
시 동독사람들이 살았던 ‘독일인 마을’이 남아있을 정도다.

함흥은 1950-70년대 ‘천리마 시대’를 상징하는 북한 최대의 중화학공업지구로 육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함흥은 1960년에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70년에 다시 함경남도 도소재지로 되돌아왔다. 함흥의 전성기가 북한이 고도경제성장을 기록하던 천리마 시대였다면 함흥의 추락은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 시기의 도시기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북한 현대사에서 함흥은 영광과 비참을 두루 경험한 도시다(홍민, 2012). 2000년대 들어와 함흥은 흥남시와의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2001년 8월, 북한은 함흥시에서 흥남구역, 해안구역, 흥덕구역과 사포구역의 일부를 떼어 흥남시로 명명한 다음, 주요 산업시설을 흥남시에 옮기고 함흥시의 각 행정구역들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흥남시는 다시 함흥시로 흡수되었다.

2) 공간구조와 경관, 건축

함흥은 공간구조와 도시경관의 측면에서 중첩적이다. 함흥에는 일제시기 식민지 근대화의 유산과 동유럽식 사회주의 계획도시의 흔적, 그리고 북한정권에 의해 양식화된 주체형식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 천리마운동 때 2차선 도로를 구축하고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함흥에는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

〈그림 17〉 함흥시 중심부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12」,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61)

다. 함흥시는 동해안과 동해안으로 흐르는 성천강, 그리고 동흥산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그림 17〉에서 보는 것처럼 함흥은 크게 도심지역과 공업지구로 양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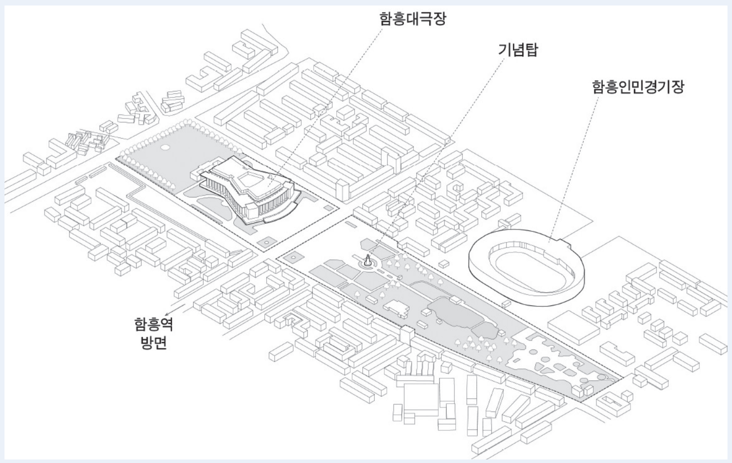
도심지역은 함흥의 도시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두 개의 인프라, 곧 성천강과 도심부를 가로지르는 철도노선과 성천교를 지나 철도노선와 평행하게 건설된 도로축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임동우·루나, 2014:24). 바로 이 철도축과 도로축을 따라 도·시단위 행정기관과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 그리고 각종 문화공간 및 상징시설이 입지해 있다. 함흥시의 행정기관은 전후 복구기에 동독 작업단이 건설한 ‘피크거리’에 주로 소재하고 있다(박희진, 2014:87-88). 또한 이곳에 김일성 동상과 혁명 유원지가 조성되어 함흥의 정치적 중심부을 형성한다.

함흥 도심부의 상징공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물은 함흥대극장이다.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대극장이라는 이름에 맞게 ‘꽃파는 처녀’나 ‘피바다’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매우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함흥대극장 못지

않게 중요한 문화공간은 종합경기장에 해당하는 함흥경기장이다. 함흥경기장은 각종 체육경기는 물론 군중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 함흥대극장과 함흥경기장은 각종 의례와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소이다.

한편, 함흥의 공업지구에는 화학공업과 기계공업 등 주요 중공업과 경공업 생산기지가 입지해 있다(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2003:52-53). 일찍이 식민지 시대에 공업화를 경험한 바 있던 함흥시는 북한의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의 공업도시로 크게 발전했다. 공업은 함흥시 경제의 기본 부문인데, 특히 함흥시는 무기 및 유기 화학공업이 결합된 대규모의 화학공업기지이다. 함흥시의 화학공업은 비날론, 화학비료, 카바이드, 농약, 합성수지, 합성고무, 물감, 기초약품 생산이 중심이다. 북한이 선전하는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공업생산을 상징하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나 흥남비료련합기업소도 함흥에 소재한다. 함흥에서 화학공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계공업 기반이다. 대표적인 공장은 용성기계련합기업소이다. 함흥은 또한 각종 건재 생산지역으로도 유명하다.

〈그림 18〉 함흥시 도심의 상징공간



(출처: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북한도시사연구팀, 2014:25)

함흥시의 공장들은 흥덕구역과 흥남구역에 밀집하여 도심지역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다. 곧, 함흥에서 상징적 및 정치적 중심공간과 주요 생산공간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에 공업중심지역인 흥남구역이 흥남시로부터 일시 독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리 개선책으로 경제중심 구역인 흥남지역을 별도로 관리, 운영하려는 방침은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번복되었다.

함흥대극장

함경남도 함흥시 은정동에 소재하며 1984년 4월 준공되었다. 총부지면적 11만㎡, 건축면적 15,000여㎡, 연건축면적 58,000㎡인 극장에는 2,500여 석을 가진 관람홀과 700여석을 가진 관람홀이 있다. 층수는 앞면 7층, 뒷면 9층으로 되어 있으며 연습실, 녹음실, 공연준비실, 각종 기술실을 비롯한 실내장식들이 조형예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환기조건, 난방조건, 음향조건 등이 현대설비들로 갖추어져 있다. 극장은 거리형성 조건에 맞게 앞뒤를 독특한 부채형으로 넓혀주고 정면은 반원형 주랑(柱廊)식으로 처리하면서 측면은 덧기둥에 처마식으로 하였다. 건물덩어리의 크기를 조형적으로 변화를 주어 주변의 풍치공간과 잘 어울리도록 하였다. 함흥대극장은 건축형식이 독특하면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게 처리되었다고 전해진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12」, 2003:60).

함흥경기장

함흥시 금사동에 소재하며, 8.15 광복 전에 야구장으로 건설된 바 있다. 광복 후에 육상, 축구, 농구, 배구, 국방체육, 민족체육 종목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1973년 5월 20일부터는 대규모의 종합경기장 개건사업으로 착공하여 1975년 7월 30일에 완공하였다. 또한 3만 3천여 명을 수용하는 관람석과 대규모 집단체조 설비,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경기장에서는 해마다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휴식일에 다양한 체육행사가 진행된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12」, 2003:60).

2.8비날론련합기업소

북한의 행정구역상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구 본궁지구)에 있는 화학섬유종합공장으로 1974년 일제시대에 건설된 본궁화학공장과 1961년 완공된 2·8비날론공장, 그리고 관련 화학공장 및 광산을 통합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1935년 건설된 본궁화학공장, 즉, 1936년에 가동된 일본질소 본궁비료공장이 한반도를 대륙침략의 식량보급 기지화하기 위하여 건설되었다. 일본에 의해 주도된 당시 북한지역의 화학공업은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에 있었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공장시설의 대단위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일제말기에 와서 생산시설의 혹사로 설비가 노후된 데다가 패전 후 일본이 고의적으로 설비를 파괴함으로써 광복 후 북한은 시설복구에 주력하였는데 본국화학공장의 경우도 외는 아니었다. 본궁화학공장은 주요시설들을 수리·복구한 데이어 1961년 초 염화비닐공장을, 그리고 1962년에는 부탄올 직장을 새로 조업하는 등 확장공사가 추진되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주요생산품목은 비발론 5만t과 염화비닐 5만t을 비롯해 가성소다 5만7천t, 부탄올 3천t, 농약 9천t, 석회징소비료 5만t, 염료 9백t, 카바이드 37만5천t, 탄산소다 1천t, 에탄올 1천t 등이다.

북한은 김일성(金日成)이 1991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함남도당 확대회의를 주재, 함흥시를 '종합적인 대화학공업단지'로 조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2·8비날론기업소에 산소분리기직장 건설을 지시함에 따라 그 해 2월부터 공사에 들러가 11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다(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공간과 시민생활

북한 내 제2의 도시로서, 그리고 대표적 공업도시로서 함흥의 시민들도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다. 비록 평양보다는 정도가 덜했지만 말이다. 이는 1970년대처럼 함흥이 성장기에 있을수록 정도가 심했다. 함흥시의 중심부 상징공간에서는 정치행사가 빈번했고, 외국 수반과 경제시찰단을 맞이하기 위해 수십만 군중이 동원되기 일쑤였다. 1970년대 함흥은 평양 다음으로 북한의 대표적 정치도시로 기능하며 성장했다. 2010년 8월에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비날론연합기업소의 현지지도를 마치고 함흥시 군중대회를 직접 찾기도 했다. 함흥대극장에서는 '꽃파는 처녀'나 '피바다'와 같은 공연이 자주 열렸고 함흥경기장은 대규모 집단체조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함흥시민의 이와 같은 정치적 동원은 평양의 경우와는 달리 별다른 국가적 특혜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상 함흥시 주민이 일상생활은 평양에 비해 훨씬 열악한 편이다. 한때 함흥은 북한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대부분의 인구가 배급을 받는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1980년대까지 함흥지역에 식량을 공급하는 지역은 대체로 황해남북도였다. 함흥지역은 서부지역에 공업제품을 공급하고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식량을 공급하던 체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북한의 식량위기는 함흥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

절 함흥시는 극심한 도시기근을 경험한 것이다. 이 점 역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배급이 유지되던 평양시민의 경우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홍민, 2012).

하지만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함흥을 평양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북한정권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함경도 출신과 평안도 출신이 앙숙인데다가 식량난 때 서부지역의 식량이 함경도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제한되자 함흥주민들의 정치적 소외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함흥은 1990년대 식량위기를 겪으며 시장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다(홍민, 2012). 함흥의 시장형성은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무렵 함흥은 '마약도시'로도 유명해졌다. 과거부터 화학공업도시였고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등 관련 대학들이 입지해 있는 곳이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마약제조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북한은 함흥을 경제재건의 주요 출발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함흥의 미래와 함흥시민의 선택은 향후 북한의 향배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개성시

1) 도시 연혁

개성시의 인구는 2008년 현재 약 31만 명으로서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한 지방도시이다. 개성시는 고려의 수도로서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고도(古都)이자 최근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적 무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록 인구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비중 있는 북한의 지방도시 중 하나로서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림 19〉 개성시 위치도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2」,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246)

개성과 인근 지역의 지명 유래는 삼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2004a:246~ 247). 고구려시기 이 지역은 부소갑과 동비홀로 불리었는데, '부소갑'은 송악산을, '동비홀'은 개성을 의미했다. 신라시대 후기에 들어와 이 지역들을 송악산과 개성군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성(開城)은 뜻풀이 그대로 "성을 연다"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지명이다. 고려 건국 1년 후인 919년에 개성과 송악이 통합되어 수도가 되었다. 당시 개성은 개경, 황도, 황성, 경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후 개성은 470여 년간 고려의 황도이자 정치사상의 중심지로서 부흥하였다(박소영, 2010:50). 개성시의 모든 건축물은 국규(國規)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건설되어 위엄 있는 경관을 갖게 되었다. 또한 중국 송나라와 아랍, 일본 등 외국과 폭넓은 교역을 하여 950년경에는 인구 약 70만 명에 이르는 무역과 상업 중심도시로 번성하기도 했다. 개성은 당시로서는 매우 '국제화' 된 도시였다. 개성의 대표 이미지가 '개성인삼'과 '개성상인'이 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하지만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개성은 수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1396년 이후 개성군, 개풍군으로 개편되었다. 비록 황도의 지위와 역할은 상실하였지만 조선시기에도 교역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개성의 위상에 관해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는 대외교류나 개방의 창구로서 개성이 갖고 있는 역사적 경험과 전통이다. 둘째는 수도를 한양으로 뺏긴 이후 일종의 정치적 상실감 내지 피해의식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다. 조선조가 패망하고 일제 식민지를 거쳐 해방 이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에도 북한정권은 개성이 아닌 평양을 '수도'로 정했다. 개성은 수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개성의 자존심과 관련하여 개성은 통일 이후 새로운 희망을 기약할 수도 있다.

8.15 광복과 더불어 개성은 한반도에서 가장 비극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국토의 분단에 이어 개성은 도시 자체가 사실상 남과 북의 두 지역으로 갈라졌다(백과사전출판사, 2009:642). 개성시의 개풍군, 장단군, 연천군 등의 지역은 좌익의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고, 다른 지역은 미군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좌우익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6·25전쟁을 통해 개성은 북한 지역에 완전히 속하게 되었고 종전 4년 후 당중앙이 직접 지도하는 '도'(道)급 행정단위인 직할시로 승격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북한은 이른바 '신해방지구' 개성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특별관리하였다.

북한은 휴전 직후 개성시에 대한 정비사업을 곧바로 진행하였다(박소영, 2014:29-30).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문화유적에 대한 정비부터 시작한다. 전쟁 동안 파괴된 남대문을 복구하고 만월대, 선죽교 등이 정비하였다. 지금도 개성은 국내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다. 이와 더불어 북한 당국은 개성시를 '사회주의'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개성시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북한 사회주의 식의 행정, 교육, 생산 시설들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2) 도시 공간구조와 경관

개성시는 예성강과 군사분계선에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는 남한의 김포시, 강화군 등과 마주하고 있다. 개성시의 면적은 약 180㎢이고, 그중 시가화 면적은 약 13.3㎢이다(임동우·루나, 2014:258). 1960년대까지 개성은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따라 역사 도시이자 경공업지구로 건설되었다(박소영, 2011:257). 우선 문화유적 정비와 함께 조선식 기와집을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민속거리를 만들고 민속여관과 통일관(대규모 식당)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개성 도심을 관통하는 통일거리에는 고층아파트와 영화관 등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판문점 방향의 도로에는 기계공장, 식료공장 등 경공업시설들을 배치했다.

또한 개성시는 ‘사회주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로 갖추게 되었다(박소영, 2014:30-31). 우선 개성이 재건되면서 광장이 건설되어 이곳에서 각종 문화행사, 경축행사,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그 주변에는 행정경제위원회나 개성신문사 등 행정기관과 언론기관, 송도사범대학, 개성학생소년궁전, 개성공산대학 등의 교육기관이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는 자남산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집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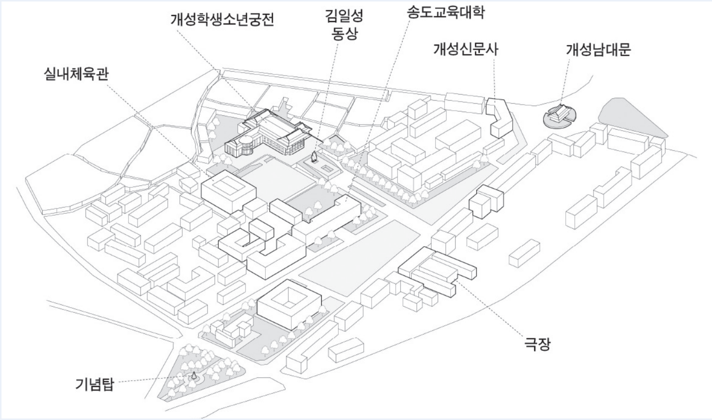
〈그림 20〉 개성시 중심부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2」,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246)

이와 같은 과정은 개성시의 공간적 중심축을 크게 변화시켰다. 과거 개성의 핵심적인 가로는 고려 황궁의 광화문에서 남대문 밖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십자로였다. 하지만 1968년 자남산 언덕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언덕으로 향하는 거리에 고층건물과 행정기관들이 들어서면서 개성의 중심축이 남대문의 동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박소영, 2014:31 -32). 1992년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완성한 북한은 김일성 동상을 원점으로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일선구간을 ‘통일거리’로 명명하였고, 이는 광장과 함께 개성시의 가장 중심적이며 상징적인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통일거리는 자남산 김일성동상에서 시작되는 약 1.7km 거리이며 광장은 이것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임동우, 2014:26). 통일거리가 끝나는 언덕에는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로 고층아파트와 각종 문화·교육시설 상징적인 건축물들이 펼쳐져 있다. 광장은 주민들이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공간으로서 남대문과 기념탑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는 도로의 축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삼각형 공간을 광장으로 이용하는 전

〈그림 20〉 개성시 상징 공간



(출처: 「함흥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북한도시사연구팀, 2014:27)

형적인 사회주의 도시광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통일거리의 김일성동상에 김일성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동상이 학생소년궁전과 자남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개성남대문

개성시 북안동에 위치하며 1391~1393년에 세워지고 1899년에 보수되었다. 1950년 12월 폭격으로 불탔으나 1954년에 복구되었다. 개성남대문은 화강석을 곱게 다듬어 쌓은 장방형평면의 축대와 그 위에 세운 문루들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개성남대문의 모습은 검소하게 느껴져서 고려 말기 두공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한다. 개성남대문 문루에는 유명한 연복사종이 있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2」, 2003).

대흥산성

개성시 박연리에 있는 옛 성터, 대흥산성은 고려의 수도방위를 위하여 쌓은 성이다. 천마산성이라고도 한다.
대흥산성은 대흥산의 산성골을 끼고 천마산, 천량봉, 성거산, 안달봉 등 봉우리들을 이어가며 쌓은 석성이다. 둘레는 약 1만 100m이다. 성벽의 높이는 보통 4~5m이고 골짜기를 넘는 부분은 6~8m이다. 성벽 위에는 성가퀴를 쌓았다. 성의 동서남북에는 큰 성문들을 두고 그 사이에 사이문과 암문들을 냈다. 문들 가운데서 보존상태가 좋은 것은 박연폭포 옆에 있는 북문이다.
대흥산성은 고려시기 수도방위체계와 축성기술 그리고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치있는 유적이라고 한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2」, 2003).

개성학생소년궁전

개성시 북안동에 위치한 청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육기관이다. 1956년 내가결정에 의해 착공되어 1961년 개관하였다. 5만㎡의 부지면적과 1만 2천여㎡의 건평으로 건축되었고, 4층으로 된 본관과 3층으로 된 체육관이 있다. 30여개의 연구실, 40여개의 소조실, 120여개의 실험실, 750여 석의 극장, 체육관,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다. 여기에는 일반기초지식을 배우는 60여개의 일반연구소조가 활동하고 있으며 하루 3,000여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과외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2」, 2003).

송도사범대학

개성시 북안동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보통교육부문 교원과 고등전문학교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33,290㎡의 연건평을 갖고 있다. 여러 동의 교사와 기숙사, 각종 실험실습실, 도서관, 출판소, 강당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대학은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체계(3년제), 중학교 교원, 고등전문학교의 일부 과목교원을 양성하는 체계(5년제), 외국어학원(6년제중등반)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산하에 혁명력사학부, 어문학부, 물리수학부, 생물화학부, 예능학부 등의 학부가 있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2」, 2003).

3) 공간과 시민생활

위에서 살펴보듯이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에 따라 개성시의 도심은 광장과 통일거리를 중심으로 정치적, 문화적, 상징적 건축물들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민들은 중요한 문화행사, 경축행사, 군중대회에 일상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장과 통일거리는 개성에서 북한 건국 이후 새롭게 떠오른 정치·행정의 중심지이면서 주민들이 대규모 행사와 의례를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심공간은 앞으로 달라질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개성은 남한과 가장 가까운 접경도시로서,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산업적 측면이다. 우선 개성시 인근에는 남북한 경협의 현장인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통근하고 있다. 공업지구는 개성의 기존 산업시설과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성시의 공간구조 자체에도 새로운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남한과의 경제적 교류협력이 심화된다면 이와 같은 변화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모기장 치기' 전략으로 개성공단을 통한 외부문물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하지만, 이른바 '초코파이 효과' 혹은 '북한의 초코파이제이션'(The Choco Pie-izaton of North Korea)를 장기적으로 얼마나 막아낼 지는 의문이다(정근식·김윤애, 2015)

둘째는 문화적 측면이다. 개성시는 과거 고려의 황도였으며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적은 편이라 옛 문화유적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2013년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서의 개성은 앞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개성공업지구를 통한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의한 대외 개방에 따라 개성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북한 다른 도시 주민의 그것과 사뭇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함흥과 함께 개성 역시 향후 북한의 변화에 관련하여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3. 평성

1) 도시연혁

이 책에서 평성을 북한의 중요 지방도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이유는 평양에 인접한 신흥 위성도시이기 때문이다. 평성은 1965년 평양시 용성구역과 평안남도 순천군의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신설한 신도시이다(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2004b:48). 평양을 보위하는 성새(城塞)가 되라는 뜻

에서 평양의 '평'자와 성새의 '성'자를 따서 '평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1965년 신설 당시에는 평성 '구'였으나 1969년에 평성 시로 승격되어 평안남도 도소재지가 되었다. 북한은 평성시가 김일성이 손수 명칭을 지어준 '영광의 도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림 22〉 평성시의 위치도

(출처: 「조선향토대백과 3」,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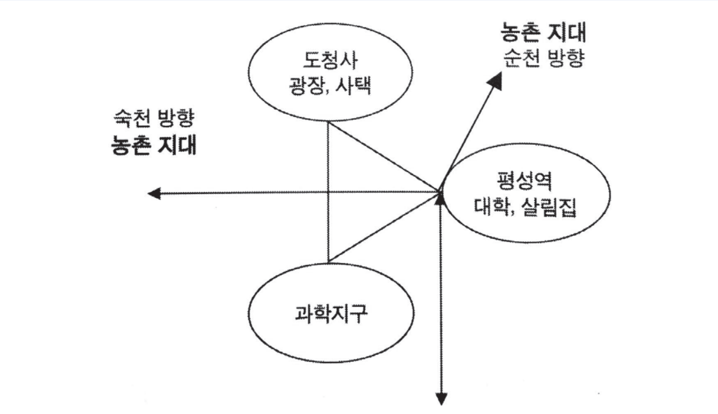
평성시의 인구는 2008년 현재 약 28만 명이고, 면적은 약 381㎢이다. 평성은 지리적으로 서쪽과 남쪽을 평양과 접하고 있어서 평양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평성은 평양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앞서 밝혔듯이 평성시는 김일성이 손수 이름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수십 차례 현지지도하고 일제 강점기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그만큼 평성시는 북한 건국 이후 신설된 도시이자 평안남도 도소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평성시는 신흥 도시이자 평양의 위성도시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평성시는 평양의 북쪽에 연접한다. 북한은 1960년대 초 계획경제의 성과와 공업시설의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 위성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위성도시는 모(母)도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1960년대 말에 건설된 평성시는 위성도시로서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규모가 큰 편이다(박희진, 2014:155-156). 북한은 평양의 위성도시 평성을 과학도시로 특화하고자 했다. 과학단지와 이과대학 등을 건설하여 명실상부 북한 최고의 인재들이 밀집한 도시이기도 하다. 하지만 1994년 국가과학원 단지가 다시 평양에 편입되어 현재는 과학도시라기보다 교육도시에 더 가깝다.

2) 도시 공간구조와 경관, 건축

1969년 시로 승격된 이후 평성시의 경계는 계속 확대되었고, 인구와 산업시설, 연구기관, 교육기관들이 계속 늘어났다(박희진, 2014:157-159). 평성시는 평안남도 도소재지로서 각종 행정기관들이 속속 들어섰다. 북한의 여느 도시처럼 행정기관들이 밀집한 중심지역에는 평안남도 행정기관들과 김일성 동상, 광장 등이 설치되었다. 이곳이 평성시의 행정적, 상징적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광장과 높은 건물, 편의봉사시설인 은정원 등이 상징적인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23〉의 "도청사 광장, 사택" 영역).

〈그림 23〉 평성시의 공간구조



(출처: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북한도시사연구팀, 2014:27)

이밖에도 평성시는 연구 및 교육의 중심구역을 갖고 있다. 평성리과대학의 설립과 함께 1970년 평성에는 과학원과 각종 과학·연구기관들이 밀집한 '과학지구'가 조성되었다.[13] 그리고 평성역 인근에는 여러 대학들과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렇듯 행정적, 상징적 중심지 인근에 '과학지구'라는 또 다른 중심지가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과학원이 평양시의 은정구역에 편입되었지만,[14] 과학원과 관련된 연구·교육기관과 연구원들의 주택은 평성의 도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성을 볼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시장의 성장이다. 1990년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동안 중국이나 기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상품들이 평성에 집결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평성의 '하차시장'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평양을 대신하여 평양시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북한 최대의 도매시장으로 급부상하였다(홍민, 2012:31). 평성시장의 경우 하루 약 1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만큼 평성에는 시장경제 활동을 통한 '신흥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과 연접한 신도시로서, 과학도시로서, 그리고 신흥부자들의 도시로서 평성은 아파트가 도시의 핵심 공간이자 경관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당이나 행정기관의 간부들, 엘리트 과학자들, 그리고 시장을 통해 새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아파트 거주를 통해 차별적인 거주공간을 연출하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성으로 알려지고 있다(홍민, 2014). 요컨대 평성에서는 도급 행정기관들이 들어서 중심지역에 김일성 동상과 광장 등이 들어서 행정적, 상징적 중심공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시장과 아파트 주거공간이 사실상 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평성 과학지구는 과학원 안에 전자공학 · 열공학 · 공업미생물학 연구소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연구소와 중간시험공장, 과학도서관, 리과대학, 그리고 과학자들의 살림집(주택)들이 집합체를 이루어 명실상부한 과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수립하게 한다" 『조국』, 1992년 9월, 79~83쪽; 박희진, 앞의 글, 160쪽에서 재인용

14 통일부 홈페이지,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overviewPrint.do?sumryMenuId=EC222

북한의 과학원

과학원(현재 국가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으로서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10월 9일 창립되었다. 북한은 1982년 4월 과학원을 정무원의 행정부서로 격상시켰으며, 1994년 2월에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기구를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내각과 해당 기관에서 후속 실무대책을 세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과학원의 기구로는 1실, 21국, 21위원회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직할연구소인 은정분원, 7개의 분야별 연구분원, 지방의 함흥분원,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종합공장과 천문대,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두고 있다(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overviewPrint.do?sumryMenuId=EC222)

평성리과대학

1967년에 설립된 대학교이다. 평안남도 평성시에 위치해 있다. 교직원 등의 연구원은 4만 명, 학생은 1,500명 이상이다(출처: 위키백과, "평성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평성시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석탄공업부문의 기술인재들과 과학자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1968년 청진광산금속대학의 석탄공학부문 학과들을 분리하여 평남석탄공업대학을 창립하였다. 1997년 명칭을 평성석탄공업대학으로 개칭하였다. 창립 후 현재까지 수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탄광관리자들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대학 산하에는 석탄지질탐사학부, 무연탄채굴공학부, 유연탄채굴공학부, 탄광기계공학부, 탄광자동화공학부 등 여러 개의 학부와 수십 개의 강좌, 그리고 대규모의 연구소와 박사원이 있다고 한다. 이외에 도서관, 출판소와 각종 실험실, 실습공장, 실습탄광이 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부문의 대학생들보다 높은 장학금과 조건을 보장받으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3」, 200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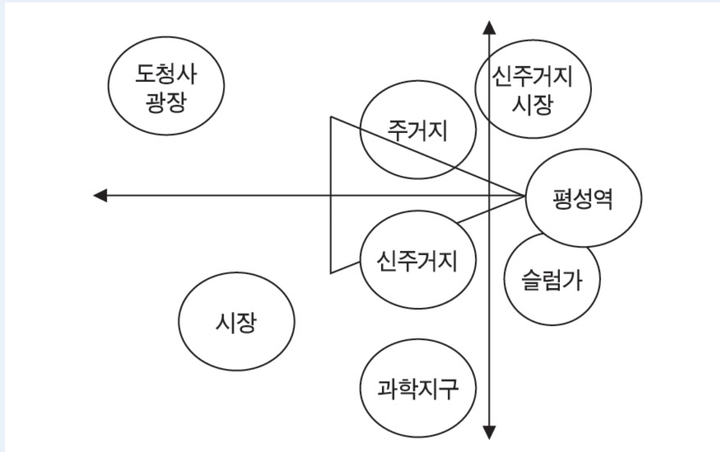
공업미생물학연구소

평성시내에 입지한 연구기관, 미생물을 이용하기 위한 과학문제를 연구하여 생산에 도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국가과학원 소속기관이며, 1962년 창설되었다.
연구소에는 많은 연구실과 최신과학연구설비, 공업화 시험장치로 완비된 중간종합시험공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연구소는 미생물공업분야의 과학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에 도입하여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출처: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공편, 「조선향토대백과 3」, 2004:53).

3) 공간과 시민생활

평성시 시민들의 문화행사나 경축행사는 행정기관들이 밀집한 도소재 구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행위는 북한의 여느 도시와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볼 경우 평성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평성의 '하차시장'은 전국적으로 각종 상인들을 불러 모으며 다양한 시장거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평성에 유동인구의 증가를 초래했다(박희진, 2014: 162~173). 이와 같은 시장의 성장은 행정도시이자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도시 공간생활에 있어서 정치적 참여나 상징적 동원의 비중을 저하시키는 측면

〈그림 24〉 하차시장 활성화로 인한 평성의 공간분화



(출처: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북한도시사연구팀, 2014:172)

이 있다.

또한 평성은 평양과 인접해 있어 외부정보가 많은 편이다. 관료나 과학자 등 전통적 엘리트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다가 신흥 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도시가 바로 평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평성시민들의 공간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큰 곳은 광장이나 가로가 아니라 점차 성장하고 있는 시장과 사실상 사유화되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 평성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도시공간적 거점이 될 가능성은 적다. 평성 도시공간의 '자본주의화'가 늘어날수록 평양으로부터의 '정치적 감시' 또한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함흥이나 개성과 더불어 평성도 변화의 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6

북한, 도시로 읽다

결론

V

결론

V

도시는 실체이기도 하면서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의 도시 역시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공간이다. 북한을 도시로 읽으면서 이 책은 다음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물론 북한의 모든 도시를 살펴본 것도 아니고, 이 책에서 다룬 네 도시를 같은 깊이에서 분석한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직접적인 현지 관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 책의 결론은 다분히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북통일을 바라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원하는 입장에서 변화의 싹을 가급적 최대한 찾아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희망적 사고'에 스스로 빠졌을 수도 있다.

북한을 도시로 읽을 경우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측면은 평양의 특권적 위상이다. '극장국가' 북한에서 평양이 그것의 '공연무대'로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공간이나 경관, 건축의 측면에서, 그리고 평양시민들이 누리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차원에서 그렇다. 북한체제의 이념, 권력, 부, 지위 등에 걸쳐 모든 기득권이 압축된 도시가 바로 평양이다. 이와 같은 평양의 극단적 종주화는 양과 질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훨씬 능가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김씨왕조로서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 김일성 시대보다는 김정일 시대가 그랬고, 김정은 역시 2103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 과업으로 평양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정창현, 2014:172-173). 과거 김정일이 대형 건축물이나 기념물의 건설에 매진했다면, 김정은은 공원이나 유원지, 체육시설, 오락공간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계자로서 평양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방의 희생 위에 전개되는 평양의 특권적 독주나 '빵과 서커스' 통치전략은 장기적으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평양 이외 지역의 불만을 촉발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일상의 행복을 바라는 평양시민들의 희망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도시들의 두 번째 특징은 외형주의에 치우친 시각중심의 도시라는 점이다. 물론 근대 도시계획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각중심성이기는 하다. 모든 공간을 시각적으로 읽기 쉽게

만들 뿐 아니라 볼거리 혹은 스펙터클로서의 의미도 도시공간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근대 도시계획의 특성에 더하여 북한의 경우 도시의 공공영역은 기본적으로 가치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이종호, 2013:23)이다.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가치와 이념을 드러내기 위해 시각경관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평양을 위시한 북한의 도시들이 중시하는 광장이나 가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담는 공간이 아니다. 북한 도시들의 공간은 "머무는 영역이라기보다 바라보는 영역"에 더 가깝다(이종호, 2013:22)

셋째는 이와 같은 공적 공간 중심의, 그리고 행사용 시각위주의 공간구조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시장의 등장과 일부 아파트 사용권의 사유화 경향에 따른 것이다. 시장은 외지인의 유출입을 증대시키고 정보유통을 늘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망을 공식적인 것으로부터 비공식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배급제에 입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와해되면서 생존 그 자체를 위한 사적 관계망의 활성화는 청진이나 신의주, 혜산 등 국경도시에서 특히 잘 드러나고 있다(장세훈, 2005).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평양이나 개성, 평성의 경우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공간의 중심이 공식적으로는 광장이나 가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이나 골목으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전통적 엘리트계층과 신흥 부자들을 중심으로 사실상의 사적 소유화가 발생하고 주택의 사용권이 사유화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공간으로 부상할 공산도 존재한다. 최근 평양에서는 1970-80년대 노후아파트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IT 기기 확산을 통한 사이버 공간의 확대도 이러한 추세에 가담하고 있다.

아파트를 이웃과 단절된 폐쇄적 가족주의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아파트 역시 공동체적 근린관계와 공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곧, 북한에서는 아파트 문을 일상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박현선, 2003). 하지만 북한의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살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15] 북한체제의 미래가 불안할수록, 계층간의 분화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국가가 더 이상 주택공급자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수록 북한도시의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글 수도 있다. 그

[15] 스탈린 시대 소련에서 가장 흔한 주거유형은 공동아파트(콤무날카, kommunalka)였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아파트 문을 열어 놓아야 했다. 공동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웃들의 개인적 습관, 방문객과 친구, 구입한 물건, 먹은 음식, 전화로 말한 내용, 방에서 말한 내용까지 거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파이지스, 2013:308)

리고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아파트 내부의 사적 관계망으로부터 북한 도시들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지도 모른다. 도시가 역사적으로 수행해 왔던 변압기로의 역할을 북한은 예외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국 · 내외 문헌

강상중, 2013.「도쿄산책자 – 강상중의 도시 인문 에세이」, 사계절

공민달, 2012.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학연구 8(2)

공간사, 2013. “북한과 평양, 호기심과 추상을 넘어”,「월간 SPACE」, 2013년 2월호

권헌익 · 정병호, 2013.「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창비

권형진, 2011. “나치 독일의 도시건설 프로젝트 - 베를린, 뮌헨,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21:89-132

김기호, 2006. “북한의 도시계획”,「남북한 환경정책비교연구 2」,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신원, 2007. “남북한의 토지관계법 및 조경공간”, 환경과조경 236:182-187

김영나, 2004. “유토피아의 신기루: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주의 도시와 모뉴먼트”,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21:153-177

김원, 1998.「사회주의 도시계획」, 보성각

남영호, 2014. “사회주의 도시의 ‘농촌적’ 요소들: 소련 도시의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북한도시사연구팀(엮음),「함흥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한울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2003.「화려한 군주: 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박소영, 2010. “북한의 신해방지구 개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박소영, 2014. “사회주의 지방도시-개성과 ‘개성시’의 변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심포지움 자료집(2014. 6. 10)

박현선, 2003.「현대 북한 사회와 가족」. 한울

박희진, 2014. “북한 평성의 공간적 변화와 도시성 탐구”, 동국대학교 북한도시사연구팀(엮음),「함흥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한울아카데미

안창모, 2012. “평양의 도시와 건축”, 필립 뮈제아(편),「이제는 평양건축」, 담디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옮김), 2011.「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와다 하루키, 서동만 · 남기정(옮김), 2002.「북조선」, 돌베개

올랜도 파이지스, 김남섭(옮김), 2013.「속삭이는 사회」, 교양인

이왕기, 2000.「북한건축: 또 하나의 우리 모습」, ㈜서울포럼

이우영, 2013. “평양의 도시문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학술대회 〈평양, 도시로 읽다〉 자료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윤하, 2010a. “사회주의 내용에 민족적 형식정립: ‘주체건축’의 미학적 실험”, 민족 21 107:144-149

이윤하, 2010b. “오래된 역사와 새로운 이념 잇는 혁명의 상징”, 민족 21 109:146-151

이윤하, 2010c. “모든 건축물은 건축가의 철학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읽어야”, 민족 21 115:150-155

이종호, 2013. “도시: 두 도시 공공영역의 상보성,” 조동호(편), 2013.「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EAI

이주철, 2003. “선택받은 도시, 평양과 평양사람들”, 역사비평 65:96-115

임동우, 2011.「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 평양 도시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효형출판

임동우, 2014. “북한 주요 도시의 공간 구조와 다이어그램”. 동국대학교 북한도시사연구팀(엮음),「함흥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한울아카데미

임동우 · 루나 엮음, 2014.「북한도시 읽기」, 담디

장세훈, 2004. “북한 대도시의 도시화 과정: 청진, 신의주, 혜산의 공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장세훈, 2005a. “북한 도시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39(2)

장세훈, 2005b. “한국전쟁과 남북한의 도시화:서울과 평양의 전후복구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67
장세훈, 2006. “전환기 북한 도시화의 추이와 전망”, 한국사회학 40
전상인 · 김미영 · 조은희, 2015. “국가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학회 50(1)
정근식 · 김윤애, 2015. “공단 밖의 변화: 개성주민과 북한사회,” 김병로 외, 개성공단. 진징진
정병호, 2010.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22(2):1-42
정창무, 2012. “북한의 도시, 인구와 주택”, 대한토목학회지 60(3)
조남훈, 2013. 북한의 도시화 추이와 특징, KDI 북한경제리뷰 15(5)
조동호 (편), 2013.「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EAI
조동호, 2013. “경제: 서울보다 경제력 집중이 심한 도시, 평양,” 조동호 (편), 2013.「평양이 서울에게, 서울이 평양에게」, EAI
통계청, 2013.「북한의 주요통계」, 통계청
통계청, 2014.「북한의 주요통계」, 통계청
통일연구원, 2009.「북한이해」, 통일연구원.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옮김), 1995.「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2」, 까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석정, 1999.「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 출판부
홍민, 2012. “북한연구에서 ‘공간’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함흥과 평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8(2)
홍민, 2014. “북한의 아파트 건설역사와 도시정치: 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동국대학교 북한도시사연구팀(엮음),「함흥과 평성: 공간 · 일상 · 정치의 도시사」, 한울아카데미
Aristotle, T. A. Sinclair (trans.), 1981. The Politics, NY: Penguin Books
Carol Medlicott, 2005. “Symbol and Sovereignty in North Korea,” SAIS Riview 25(2)
Clifford Geertz, 1980. Negar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vid Gordon, 2006. “Capital Cities in the Twentieth Century, in David Gordon (ed.), Planning Twentieth Century Capital Cities, Routledge
Lawrence J. Vale, 2006. “The Urban Desing of Twentieth Century Capitals,” in David Gordon (ed.), Planning Twentieth Century Capital Cities, Routledge
Wofgang Sonne, 2003. Representing the State: Capital City Plann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Munich: Prestel

북한 문헌 · 자료

국가관광국, 1999. 평양, 국가관광국
김일성, 1980a. “전후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6(1950.06-1051.1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0b. “전후복구건설에서 건축가들과 건설기술자들의 임무”, 김일성 저작집 8(1953.8-1954.6),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0c.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0(1956.1-1956.1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1.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1958.1-1958.12),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2.「김정일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5.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웅장화려한 인민의 도시로 건설하자”, 김정일 선집 5(1975-1977),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1997. “건축예술론”, 김정일 선집 11(1991.1-1991.7),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2005.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새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걸작이다.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91(2002)년 8월 15일”, 김정일 선집 15(2000-2004), 조선로동당출판사
리민주, 2005.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승인, 집행에서 나서는 법적요

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2005년 제3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리화선, 1989.「(조선부문사)조선건축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리화선, 1993a.「조선건축사 Ⅱ」, 발언
리화선, 1993b.「조선건축사 Ⅲ」, 발언
백과사전출판사, 1995.「조선대백과사전 제1권」,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1998.「조건대백과사전 제6권」,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2000.「조선대백과사전 제14권」, 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2009.『광명백과사전 8』.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1986.「평양의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출판사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공편, 2003.「조선향토대백과 12」, 평화문제연구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공편, 2004a.「조선향토대백과 2」, 평화문제연구소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공편, 2004b.「조선향토대백과 3」,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화보사, 1946.「평양」, 조선화보사
조선화보사, 2007.「평양」, 조선화보사
조선화보사, 1991.「조선에서의 건설」, 조선화보사

웹사이트

NK조선, http://nk.chosun.com
국토교통부, V-World www.vworld.kr
북한지역정보넷, www.cybernk.net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위키백과, www.wikipedia.org
통일부, http://nkinfo.unikorea.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